방송작가

Korea Tv & Radio Writers Journal

VOL
157



Special Theme

합쳐야 뜬다 : 영화와 드라마의 특별한 만남

여기 이 作家
넷플릭스 〈킹덤〉 김은희 작가

방송작가

KOREA TV & RADIO WRITERS JOURNAL
APRIL 2019

Special theme
**합쳐야 뜬다 :
영화와 드라마의
특별한 만남**



여기 이 作家
넷플릭스 〈킹덤〉
김은희 작가

04 **여기 이 作家**
자신이 잘하는 걸
열심히 쓰면 저절로
넷플릭스 〈킹덤〉 김은희 작가
글 김윤양

10 **방송작가가 만난 사람**
그럼 누가 합니까?
〈항거: 유관순 이야기〉
조민호 감독
글 김명호

16 **작가 in 작가**
음악을 거니는 시간
KBS2R 〈양파의 음악정원〉
신은영 작가
글 김선미

20 **회원 됐어요**
대놓고 폼나게
KBS2 〈슈츠〉
김정민 작가
글 박나경

24 **인생 2막**
페이스북 〈먹킷리스트〉 운영자
황정연 작가
글 김명호

30 **영화와 드라마 사이,
대안은 원 소스 멀티 유즈**
글 최지윤

34 **영화와 드라마는
왜 서로를 원하게 되었나**
글 공희정

38 **드라마가 영화의 '트랩'에
빠진 이유**
글 박세은

42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드라마의 필연적 진화**
글 노동열

발행일 2019년 4월 5일 | 등록번호-영등포, 라 00494 | 등록일자 2016년 10월 24일
≪방송작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방송작가≫에 게재된 필자의 의견은 본 협회의 공식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작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時代共感

46 **방송유감**
높아지는 제작비,
수출에 달려 있다
글 김윤지

50 **저작권 칼럼**
저작권의 기원
글 홍승기

54 **방송작가 반세기**
전 국민이 애청하던
어린이 버라이어티쇼
글 유수호

58 **연출노트**
세대와 시간을 넘어 소통하다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글 김종석

62 **프로그램 집필기**
춤으로 통하였느냐
Mnet 〈쌈 바디〉
글 하민숙

66 **요즘 뭐 봐?**
나의 EX
글 박해영

68 **지금 이 순간**
봄, 나의 로맨틱 시즌.
글 고선희

70 **김수민 변호사의 Q&A**
원고료 미지급 사례의 대응 방법
글 김수민

72 **시인 이정록의 강 건너 풀빛**
코피는 달다
글 이정록

74 **한창욱의 이렇게 읽는 영화**
그는 이미 영웅이었다
〈캡틴 마블〉
글 한창욱

76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
잘하려고 할수록
실패하는 이유
글 이장주

78 **해외통신 – 일본**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하여
글 김수현

81 **생명보험상식**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시려구요?
글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82 **作家共感 I**
피어라, 꽃
글 김문음

84 **作家共感 II**
봄날을 위한 선곡, '청성곡'
글 공진아

86 **作家共感 III**
당신은 부자입니까?
글 송지연

88 **협회소식**
2019 부산콘텐츠마켓 外

90 **편집자의 말**
봄날

여기 이 작가



글 김윤양 편집위원
사진 김용철
장소협조 홍대 2nd studio

자신이 잘하는 걸

넷플릭스 〈킹덤〉 김은희 작가

'NETFLIXED'라는 신조어가 있다. 직역해보면 '넷플릭스당하다'라는 의미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었을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2007년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하며 전 세계 방송 지형을 바꿔놓은 넷플릭스는 2017년 이미 미국내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 가입자 수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송 지형을 바꿔놓았고, 2019년 현재 가장 혁신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꼽힌다. '넷플릭스'는 곧 파괴적 혁신의 상징이 된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장르물의 대표주자 김은희 작가가 넷플릭스를 통해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드라마 〈킹덤〉을 집필 중인 김은희 작가를 만났다.

열심히 쓰면 저절로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며 처음 선보이는 자체 제작 드라마 〈킹덤〉은 현재 시즌1이 공개되었고, 시즌2가 한창 제작 중이다.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만큼이나 소재도 화제가 되고 있다. 좀비라는 현대적 소재가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만난 것이다.

제가 원래 좀비물을 좋아해요. 좀비들이 공포의 대상이긴 한데, 식욕만 남은 존재라는 점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좀비물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만약 좀비를 소재로 한다면 조선 시대가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전란이 있었고 먹고살기 힘들었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말도 있는 시대라면 좀비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유교적인 가치가 높고 신체 훼손이 불가능한 사회에 좀비가 들어오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좀비가 되면 왕과 양반, 평민 모든 사람들이 계층 없이 식욕만 남겨질 테니 아이러니하게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좀비가 출연한다는 파격적인 드라마 〈킹덤〉은 김은희 작가의 만화스토리 데뷔작 〈신의 나라〉(2015)에서 출발했다. 2011년 〈싸인〉, 2012년 〈유령〉, 2014년 〈쓰리데이즈〉 등 숨가쁜 필모그래피를 떠올리면 만화 〈신의 나라〉는 다소 튀는(?) 행보. 매년 새로운 작품을 온에어 하는 강행군 중에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2011년 드라마 〈싸인〉을 끝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비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 어떻겠냐고 물으니 아무런 리액션이 없더라고요. 다들 제작 불가능이라고. 좀비가 공포의 대상이니 표현수위가 잔인할 수밖에 없고 해서 드라마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 아는 영화감독 역시 '그건 영화로도 안 돼요. 제작비도 그렇고…' 하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 중에 만화가 김풍 씨가 '그럼 혹시 만화로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만화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라마 1회 대본 쓰듯 써나갔죠. 그러다 드라마 〈시그널〉이 끝난 후 넷플릭스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킹덤〉 이야기를 꺼냈더니 넷플릭스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는 한국의 지상파 방송에서 부담일 수 있는 폭력과 노출에 관대한 편이고, 소재 제약도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드디어 할 수 있게 됐구나!' 싶었죠.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는 계급시대, 유교사상이나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대에 좀비라니.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극대화되는 공간 배경이 파격적이지만, 한국 시청자가 아닌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는 끊임없는 고민이었을 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문화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어요. 〈킹덤〉에서는 '배고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라기보다 허기를 갈구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죠. 각계각층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계층이 사라지고 오히려 식욕만 남아 평등해진 세상. 역병이 퍼진 세상과 위정자들로 인해 위태로워진 세상, 어떤 세상이 더 나쁘고 처참한 세상일까 물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제작과정에서 힘든 점이 없진 않았지만 적어도 작가에게 스토리와 소재로 어떤 제약을 하거나 간섭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열심히 했죠.

대개 머릿속에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구체화하기 쉽지 않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개해도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적절한 플랫폼과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없다. 이제까지 김은희 작가가 그린 드라마 주인공들은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었지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캐릭터들도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일단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요. 그러다 고민을 몇 달째 계속 했는데도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템은 저랑 맞지 않는 거예요. 더 두고 보지 말고 버려야 해요. 물론 될 듯 말 듯 아깝기도 하고 미련이 생기기도 하지만, 몇 달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기 전이잖아요? 그럼 버릴 수 있죠. 만약 쓰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만들어졌다! 그럼 못 버리죠. 주인공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데!!

스릴러물의 대가라 불리는 만큼 스토리텔링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싶었는데 뜻밖에 김은희 작가도 드라마 입문과정에서 좌절을 많이 경험했단다. 남편 장항준 감독을 만나 영화 〈그해 여름〉의 시나리오를 거쳐 드라마작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까지도 작가로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해 여름〉을 쓸 때 저는 대사가 뭔지 지문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쓴 건데 감독님이 제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고쳐쓰기 시작했죠. 1고부터 20고 넘게 쓴 것 같아요. 오리지널 작가가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해도 감독님이 보기에 '이 작가가 지쳤다' 싶으면 다른 작가를 통해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감독님 수준에 충족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 감독님도, 또 다른 분도 각색을 하셨고, 저는 당시 임신과 출산을 할 때여서 한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시사회를 보러 갔는데 작품이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썼는데 이야기가 낯설다고 할까. 이 작품이 내 작품 맞나. 연극이 배우의 작품이고 영화는 감독의 작품이며 드라마는 작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결심했죠. 결국 제가 가진 느낌을 살려 글을 쓰려면 아무래도 드라마를 써야겠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쓴 작품이 드라마 〈위기일발 풍년빌라〉였다.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써본 작가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삶의 경험도 풍부해졌으니 이전보다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막상 글을 써보니 그 또한 쉽지 않았다. 작가로서 두 번째 위기이고 터닝포인트였다.

감독님이 최근에 〈SKY 캐슬〉을 연출한 조현탁 감독님이었어요. 첫 드라마니까 남편도 도와주겠다고 크리에이터로 들어와 대본을 봐줬죠. 제 나름대로는 잘 쓴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고를 써가면 조현탁 감독도 장항준 감독도 한숨만 쉬는 거예요. 제가 '뭐가 문제야?'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문제야'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제가 써간 글이 어떤 글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대사는 안 되고 캐릭터는 다 무너져 있고, 에피소드라고 써왔는데 그닥 재미있지도 않고…. 그분들이 제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의 반응을 보며 과연 제가 계속 작가를 해도 되나 고민을 했죠. 당시 남편은 영화도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대본을 봐줬는데 '내가 영화를 찍고 왔는데도 너의 대본은 하나도 안 늘었다' 이러고. 그때 애가 한 살, 두 살 때였어요. 작가 그만두고 아이나 키워야 하나. 친정엄마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엄마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12부 정도 썼을 때였어요. 조현탁 감독과 장항준 감독이 12부 쓴 걸 보더니 '아, 이번 원고는 뭐 하나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저 너무 감격해서 밖에 나가서 울었잖아요.

1996년 사수와 아이디어맨으로 처음 만났던 남편. 장항준 감독은 김은희 작가의 작가 인생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대개 가깝고도 멀고,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남보다 더 낯설기도 한 존재가 남편이라는데 김은희 작가에게는 남편 장항준 감독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을까.

남편은 자기 시선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사회에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책을 좀 많이 봤다는 정도?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보고 글을 많이 봐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겠다고 했어요. 남편을 통해 꿈 하나 가지고 영화판에 뛰어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일상을 살면서 남편과 서로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남편은 늘 저를 믿어준 사람이죠. 〈위기일발 풍년빌라〉 때 진짜 글도 못 쓰고, 돈도 못 벌 때도 '너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믿어준 사람.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장항준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드라마작가로 인정을 받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그러죠. '세상에!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다니!' 믿어준 덕분이죠….

남편과 아내 이전에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와 창의적 영감을 주는 동반자이니 이만한 인연이 또 있으랴. 그렇지만 최고의 인연이 옆에 있어도 원고를 쓰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은 작가는 외롭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 가야 하는 길이며,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을 때 그 무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게를 견디는 것 역시 혼자의 몫이다.

처음부터 잘 쓰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위기일발 풍년빌라〉 때 해봤잖아요. 그때는 처음이었고 지금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긴장을 놓으면 원고에 드러나요. 노력하지 않으면 대본이 완성되지 않아요. 처음 원고 쓸 때 제 바람은 그저 제가 '드라마작가 김은희'라고 불러만 줘도 좋겠다, 드라마를 써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다음 작품을 시작할 때는 여전히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커서 밤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꾼다니까요.

과연 장르물의 대가라 불리는 스타작가 김은희에게 드라마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김은희 작가는 그 대답으로 '캐릭터'를 꼽았다. 드라마에 쓸 에피소드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발전시킬 수 있지만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그리고 캐릭터의 열린 마음에 자신만의 시선을 더해지면 드라마는 비로소 작가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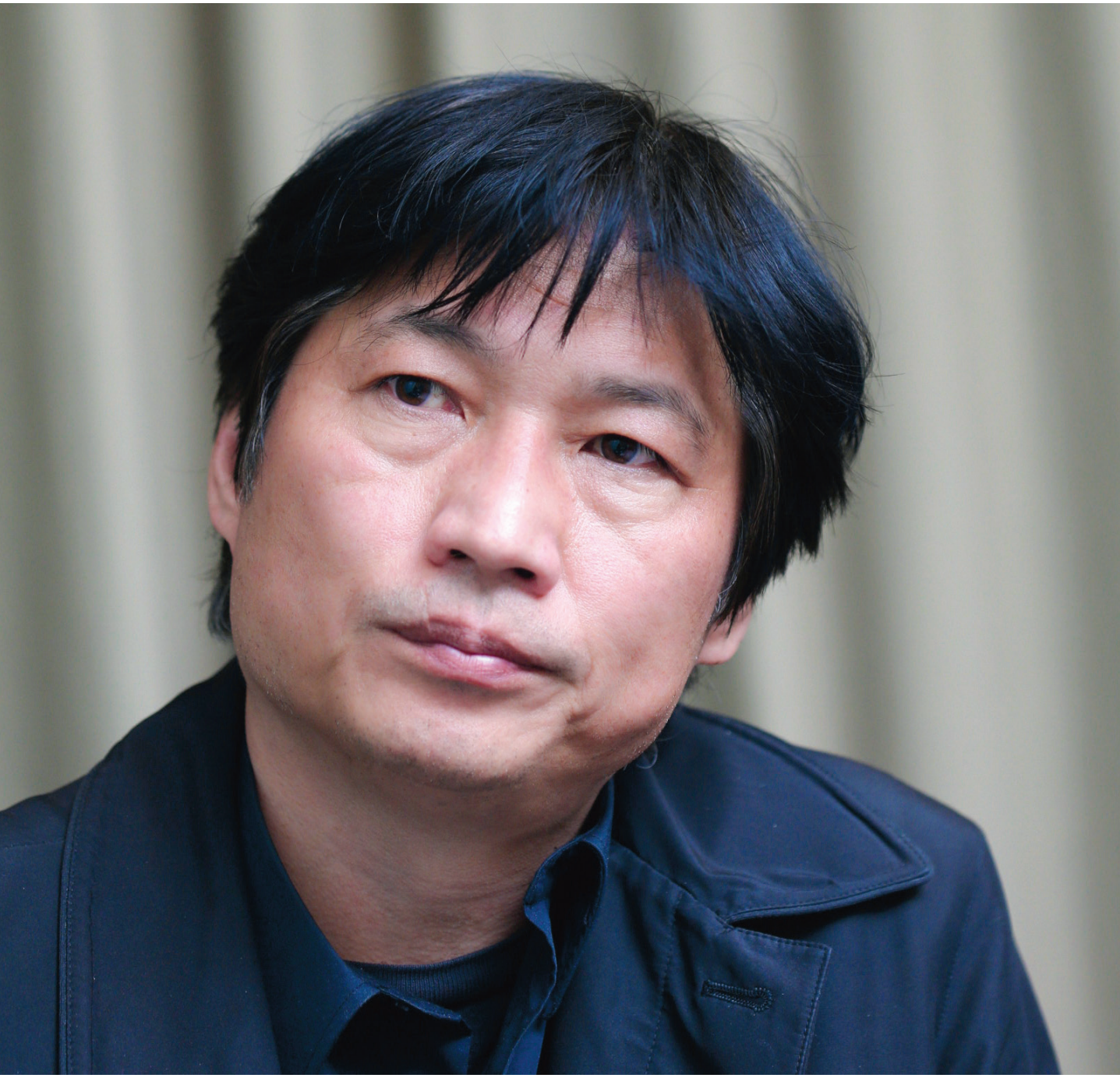
〈싸인〉 16부 하는 동안 끊임없이 제가 괴롭힌 분이 계세요. 법의관의 마음을 열어야 법의관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다가가서 제 마음을 보여주면 그제야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대사와 상황은 저절로 나오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때는 물론이고 저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감독이 됐건 제작자가 됐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며 완성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분들과 일하면 저절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스스로는 자기 시선과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기사 이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자기 시선을 가지고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열심히 쓰는 거죠. '열심히 썼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써야 열심히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량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가끔 진짜 그 말뜻을 아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가들은 많은 분들이 먼저 알아볼 것이고, 다양한 플랫폼이 그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희 作家

주요 집필 작품

2010 tvN 〈위기일발 풍년빌라〉
2011 SBS 〈싸인〉
2012 SBS 〈유령〉
2014 SBS 〈쓰리데이즈〉
2016 tvN 〈시그널〉
2019 넷플릭스 〈킹덤〉

방송 작가가 만난 사람





그럼 누가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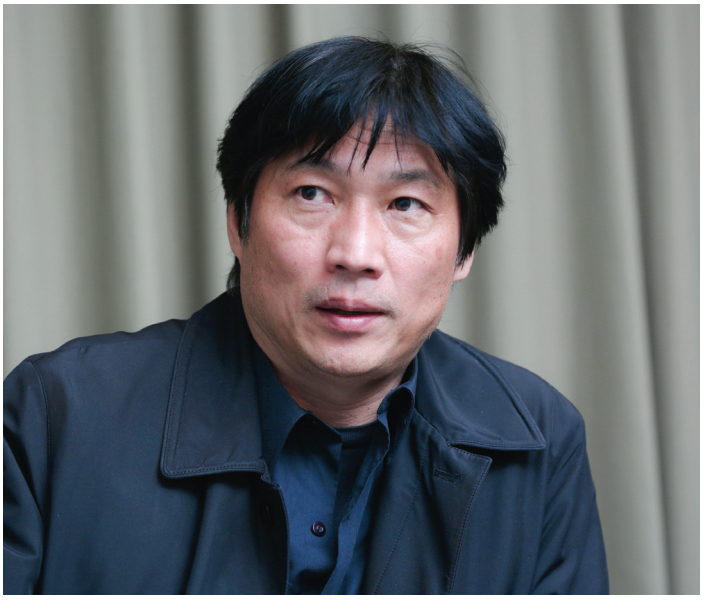
〈항거: 유관순 이야기〉

감독 조민호

… 시간이 나를 데려온 걸까?
손에 잡힐 듯한 나의 꿈들인데
흩날린 꽃잎처럼 나에게서 사라진다.
난 누굴 위해 여기 온 걸까,
무얼 위해 여기 온 걸까 …

낮게 깔린 임현정의 '청춘'을 들으면서, 조금은 뜬금없고 진부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 행성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계산조차 불가능하기에 기적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적처럼 주어진 100여 년의 삶은 길다면 길 수 있지만 45억 년 지구 역사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 그 100년의 기적을 나는 여기에 온 목적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글 김명호 편집위원
사진 김용철
장소협조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혁명 100주년에 에펠탑을 세우고 비엔날레를 열어 혁명의 가치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렸는데, 국민 대다수가 들고일어나 일제의 총칼 앞에 비폭력으로 만세를 부름으로써 인도와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준 우리의 3·1운동은 어떤가? 부끄럽지만 3·1 정신을 되새길만한 국가적인 행사도 없었고 변변한 특집방송조차 없었다. 그나마 3·1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는 독립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이하 항거)가 누적관객 100만을 넘긴 것이 유일한 성과다.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뿐인 기적' 같은 목숨을 기꺼이 나라에 바친 분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인색한 걸까? 그 갑갑함을 〈항거〉 조민호 감독을 만나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우선 10억 원 저예산 독립영화로 백만 관객을 동원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전의 작품들과 〈항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왜 '유관순'이었나요?

저는 한 인물을 계속 파고들어서 단순하고 간결하게 깊숙이 들여다보는 방식을 좋아해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복잡하던 인간관계, 역사적 관계들이 상상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렇게 안 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렇게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나? 조선 시대 의병들이 그랬고 동학혁명 농민들이 그랬잖아요. 의병을 거병하면 길면 세 달, 짧으면 3일 만에 몰살당해요. 가족들까지도 싸그리 죽였죠, 의병 일으키면 다 죽는다는 걸 보면서. 그런데도 해요. 물론 어찌 보면 유관순 열사도 타살당한 거지만 조금만 굽혔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싸우다 죽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극적 재미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죽는다는 스포일러도 있고. 그래서 드라마틱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재밌게 하라는 요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고, 유관순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인물이었어요.

인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맞게 감옥이라는 특수 공간 속 유관순의 삶을 다큐멘터리처럼 흑백 필름으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봐주신 건 매우 고맙죠, 사실적으로 봐 준 거니까. 유관순의 18년이라는 삶의 기록과 증언된 내용들, 어록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그 안의 내면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의 성격, 세상을 대하는 태도, 꿈, 바라는 세상… 그걸 느끼게 되면서 무례하게도 제가 친구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투명인간이 돼서 옆의 친구를 지켜보듯 밀착해서 썼고, 18년의 인생을 1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통해 더 깊숙이, 관객들이 감옥 안의 그 인물을 스스로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촬영 기법에 팬(pan)이 많아요. 직팬도 많고 시선을 홱 돌리면 어딘가로 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찾기도 하고. 우리 포스터는 누군가를 찾는 장면이잖아요. 계속 누군가의 마음, 주관이 개입되어 있죠. 영화는 물 흐르듯이 카메라가 안 보이게 사건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불편하긴 해요, 대신 관객들이 볼 때는 그 마음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정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유관순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오해와 불신과 편견에 맞서는 시선이라고 할까요….

사실 인터뷰 오기 전까지 〈항거〉를 봐야 할 것 같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고편에서 밀려오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좀 가볍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은 없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서 임현정이라는 싱어송 라이터가 있는데 노래가 다 키(key)가 낮고 허스키 보이스예요. 어느 날 그녀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는데 작곡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었대요. 그런데 주위에서 네 목소리는 옥타브가 너무 낮으니까 노래하지 말라고 다 말렸대요. 그래도 너무 노랠 하고 싶어서 자기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음만으로 곡을 썼다는 거예요, 높은 시나 도가 없이. 그런데 저는 그 노래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 11년 만에 '청춘'이라는 노래를 내놨는데 여전히 음은 낮은데 아주 깊이 있고 좋아졌더라고요. 임현정 씨 인터뷰를 들으면서 용기를 많이 냈어요. 여태까지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 제작사나 투자사, 혹은 배우들의 입김이 엄청났어요.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면 '재밌는 거 많잖아, 사건 사고 좀 넣고 팍팍 꽂히는 대사 좀 많이 써. 딱 몇 글자로 카피되는 그런 캐릭터로 고치면 영화 해줄게.' 그래서 나는 한국 대중들과 통하는 게 참 힘들구나, 나를 바꿔야만 가능한가? 했는데 이번에 아예 영화사를 나와서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지원을 받아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대본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했어요. 진짜로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배우들이었죠. 고아성 배우는 영화 대본 단계부터 기획을 거의 같이했고 작품을 해석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어요. 다른 배우들도 눈에서 보여주는 스펙트럼이 많은 배우들이라 표현이 거침없어서 편하게 작업했어요.

그는 3·1운동에 대한 평가가 너무 축소, 왜곡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3·1운동에 비하면 지엽적이었던 중국의 5·4운동도 혁명으로 평가하는데, 우리는 3·1 만세 운동을 고종황제의 죽음에 대한 분노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3·1 만세 선언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근대 체제로 나가겠다는 선포에 놀란 일본이 광주항쟁의 몇십 배가 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진압했기에 3·1 운동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압당한 것이고, 그 영향으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민주 공화정을 선포했으니 이것은 근대로의 혁명인데, 우리 스스로 친일의 시각으로 '만세 사건'으로 축소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하나뿐인 목숨을 원하는 것에 맘껏 쓰는 것”이란 뜻은 뭔가요?

유관순 열사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맘껏 쓰고 싶은데 18살에 죽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만 더 있으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아쉽다…’ 하는 것은 고아성 배우가 제안한 대산데, 그 ‘아쉽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가면 언니랑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서 활개 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남은 인생을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여기서 굴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나 소중한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지만,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정춘영은 유관순보다 서너 살 위라 거의 동시대를 산 인물이었어요. 친일파 중 상층부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일본이 더 멋지다는 생각에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나머지는 가난하고 못살던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서였죠. 일본에 충성하면 밥이라도 먹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으니 완장을 찬 거죠.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이 많았는데 그 인간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참 유치한 마음이에요, 어떡하든 돈을 모아서 자전거 한 대,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하나 사고 싶은 건데 그거 하나 사서 출세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거죠. 얘는 인간에 대한 고민이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유관순에게 묻잖아요, “자유가 뭐냐?”고… 유관순이 “하나뿐인 목숨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맘껏 바치는 것”이라고 하자, “어 그럼 나도 자유네, 나도 출세해서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하잖아요, 저는 친일파란 목숨 대신 부서진 자전거 하나에 연연해하는 그런 속물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친일파는 자전거 한 대 때문에, 상류층 친일파들은 궁궐 같은 집과 백작이라는 칭호 같은 ‘짜친’ 이유 때문에 나라를 판 거죠.

마지막까지 항거하면서 죽어가는 유관순에게 감옥에서 일하던 ‘소지’가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묻자, “그럼 누가 합니까?” 하며 짓는 미소에 가슴이 쿵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님의 일제 감시 카드가 크게 확대된 걸 처음 봤을 때, 제가 매우 충격을 받은 건 눈빛이었어요. 열일곱 살 소녀가 어떻게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보통 눈빛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비한 눈빛인데 아주 영웅적인 눈빛도 아니고 아무튼 많은 이야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저 눈은 정말로 솔직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눈이다, 눈으로 많은 걸 숨길 수 있잖아요, 슬픈 척, 억울한 척… 그런데 그 당시 외국인들이 찍은 구한말 사람들 사진을 보면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다 눈빛이 너무 당당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평민이건 양반이건, 애들까지도 시건방지다 할 정도로 당당해요.



저는 그 당시 사람들 눈빛하고 지금 사람들의 눈빛이 왜 이렇게 다를까 궁금했어요. 당당했던 사람들은 의병활동과 만세 이후에 여기선 안 되겠다, 밖에 싸워서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혹은 다시 세워야겠다는 열망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광복군이라던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친일파는 안 되더라도 비겁자, 방관자가 됐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런 데다 해방 후에 돌아온 독립투사들이 미 군정 하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맨날 부모들에게 듣던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남은 건 대부분은 비겁하고 방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빛이 없어요. 다들 '좋은 게 좋은 거지' '행복이 뭐냐?' 이런 얘기나 하면서 눈빛이 부드럽고 검먹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가 바라는 일에 맘껏 쓰겠다는 당당함이 없죠.

그러고 보면 인터뷰 내내 그의 눈빛은 친절하지 않고 찌르듯 날카로웠다. 어쩌면 점점 자본의 포로가 되어가는 영화판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자신이 원하는 영화에 맘껏 담아내기 위해 싸워온 사람의 당당함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간순간 미소를 지을 때는 수줍은 소년처럼 맑다, 분칠하지 않은 흑백의 시선으로 일상이 투쟁이고, 투쟁이 삶의 자유였던 8호실의 그녀가 영화 속에서 간간이 보여주던 해맑은 미소처럼… 오랜만에 살아있는 눈빛을 본 날이었다.



음악을 거니는 시간

KBS2R 〈양파의 음악정원〉 신은영 작가

글 · 사진 김선미 편집자
장소협조 합정 몽마르뜨언덕 위 은하수다방

나른한 오후,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있는 힘껏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정오의 라디오. 그러나 때론 지친 오전을 보내고 가쁜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잔잔한 위로가 절실한 날이 있기 마련이다.

한바탕 신나게 수다를 떨며 웃어젖히는 대신, 특별하진 않지만 솔직한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고 싶은 그런 날, 양파와 함께 조용히 음악정원을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



——— 이렇다 할 뚜렷한 꿈이 있진 않았어요. 방송작가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취업할 시기에 취업담당관을 통해 연결돼서 얼떨결에 시작했던 일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재밌으니까 쭉 간 거예요. TV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문화콘텐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잡학을 좋아하는 편이었달까.

그래도 국문학과를 전공하셨으니 기본적으로 글이나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셨겠지요?

——— 종종 사람들이 국문과 나오고 방송작가면 글 잘 쓰겠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나는 말을 써." 방송작가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쓰는 거잖아요. 특히 라디오는 더더욱 그렇죠. 물론 라디오작가님들 중에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 과는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구사하고 찾아내는 글쓰기에 비하면, 저는 대중적인 거죠.

글을 잘 쓰려면 아무래도 많이 읽는 것이 최선일 텐데, 말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말을 잘 쓰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말하는 그 사람이 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감정 이입을 해서 써야 하니까. 라디오작가는 DJ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써도 그게 DJ와 잘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DJ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어울리는 말을 써줘야 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말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하는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잘 살려서 써줘야 해요.

그럼 지금까지 파악된 가수 양파는 어떤 DJ인가요?

——— 양파 DJ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듯하고 단정하고, 소녀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DJ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되게 노련한 DJ들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장점이죠.
무엇보다도 뮤지션이다 보니 음악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도 양파 DJ의 큰 강점이에요. 음악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때가 있거든요. 곡을 받아들이는 느낌, 감수성이 참 좋아요. 목소리 톤 자체가 타고나게 좋기도 하고. 하나 더, 똑똑하고 영리해요. 한번 얘기하면 그게 어떤 얘긴지를 바로 캐치해서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참 좋은 DJ죠. 근데, 웃기지는 않아요(웃음).

〈양파의 음악정원〉은 큰 웃음이나 게스트 없이 온전히 음악에만 집중한, 정오시간대 방송으로는 정말 잔잔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 〈차태현의 FM인기가요〉 〈박수홍 박경림의 FM인기가요〉 〈god 데니의 키스더라디오〉 〈안재욱 차태현의 미스터라디오〉 〈윤종신의 두시의 데이트〉 등등 그동안 하셨던 프로그램들과는 확실히 결이 많이 다른데 어떠신가요?

——— 사실 저는 원래 재밌는 DJ를 좋아했어요. 항상 왁자지껄한 프로그램들을 했었죠. 그렇게 한 20년 하고 나니 뭐랄까, 더 하긴 힘들겠단 생각이 들던 찰나였는데 우연찮게 MBC플레이비의 크리에이티브 본부장 자리를 제안 받게 된 거예요. 콘텐츠 팀장으로 겸직하면서 콘텐츠 개발도 해보고, 그렇게 7년간 조직생활을 하고 작년에 라디오로 돌아오게 됐는데… 내가 옛날만큼 재밌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맨날 돈, 돈, 돈, 돈 하고 경제뉴스만 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다시 예능적인 걸 하려니 과연 그게 남아있을까. 그랬는데 마침 이번에는 웃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예요. 코너도 사연소개나 좋은 가사를 함께 곱씹어보는 코너 등 정말 기본반찬만 차려놓은 완–전 음악 위주의 프로그램. 솔직히 처음엔 좀 재미없겠다 싶은 게 약간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좋아요. 주 타깃 청취층을 제 나이 또래인 40, 50대로 뒀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의 가요 위주로 나가는데, 그때가 다 제가 일할 때고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라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도 쓸 것도 많거든요.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면 청취자들 성향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배꼽 잡을 정도로 빵빵 터지는 사연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잔잔한 사연인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약간 힐링이 많이 돼요. 남편과 싸웠는데 막상 자고 있는 뒷모습을 보니 짠하다거나, 딸이 오늘 너무 착한 일 한 거, 이런 잔잔하고 훈훈한 사연들을 많이 보니까 그게 요즘 저는 좋더라고요. 열두시 대 다른 프로그램은 다 웃기고 활발하니, 우리는 음악 위주로 잔잔하게, 좀 쉬면서 듣고 힐링할 수 있게 가자, 재미없어도 진정성 있는 사연을 소개하자는 거죠.

라디오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청취자들이 같이 만들어나간다는 거. 라디오의 기본 요소는 원고, 전화 연결, 사연 소개, 이 세 가지거든요. 라디오의 2/3를 청취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TV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나, 이런 거라면 라디오는 아, 오늘은 어떤 새로운 청취자들이 어떤 새로운 사연을 보내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두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게 같이 만들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양파의 음악정원〉은 음악 듣는 습관, 라디오 듣는 습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음악과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외롭지 않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란 느낌을 주는 게 라디오의 큰 힘이죠. 일단 저는 음악의 힘을 믿어요.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곡이 아닌 옛날 노래가 많이 나가니까 그때 추억들이 같이 소환이 많이 되는데 그게 참 좋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더 음악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중간 걸림돌 없이 물처럼 흐르는 느낌으로 튀지 않고, 세련되게. 요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됐긴 하지만 음악에 대한 편식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라디오는 선별된 좋은 음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KBS 2라디오 채널 성격이 음악 위주의 방송으로 바뀌었거든요. 당장 청취율이 안나오는 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문제고, 가야할 길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990년대 라디오 호황기를 누려보신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날 라디오 매체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드는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8년 만에 다시 왔는데, 작가료가 너무 안 올랐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던 1991년에 아르바이트로 가볍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에는, 굳이 PD가 돼야 하나? 작가도 많이 버는데, 이런 생각까지 했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예전에 비해서 매체파워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한창 일하던 때는 TV 쇼프로그램이 지금처럼 많지 않다보니 가수들이 라디오에 자기 노래가 몇 번 나오는지가 화두였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매체파워가 약해지면서 라디오작가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2라디오도 음악 위주로 하다 보니 서브작가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서브작가를 안 키우면 나중에 누가 일을 하냐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투자를 하고, 작가는 작가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확장성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회원 됐어요



KBS2 〈슈츠〉 김정민 작가

대놓고 폼나게

"지금 우리가 보아온 끔찍한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더욱 전율할 만한 사건들의 원인은 이 세상에 반항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적이고 온순한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에 있다."
– 마셜 B. 로젠버그 〈비폭력대화〉 중에서

글 박나경 편집위원
사진 김선미
장소협조 합정 B+ 카페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강&함'의 수석 파트너 변호사이자 무패 신화의 에이스 최강석이 신입 변호사 면접을 앞두고 읽던 책에 있던 내용이다. 그때 면접장에 들어선 수상쩍은 인물, 고연우. 최강석은 그가 '길들여지지 않을, 자기 방식대로 저항할 인물'임을 단박에 알아채고 그를 선택함으로써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시작된다.

2011년 미국 USA 네트워크(NBC유니버셜 소속)에서 방영을 시작해 현재 시즌8까지 마치고 시즌9를 준비 중인 동명의 인기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KBS2 TV의 〈슈츠〉. 그간 해외 드라마의 리메이크작이 거둔 성과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기에 〈슈츠〉의 리메이크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기대보다 우려가 앞섰다. 집필을 맡은 김정민 작가도 그랬다.

두려웠죠. 하필이면 이런 기회가 오나, 따라 하면 따라 했다고, 안 따라 하면 그 좋은 걸 왜 안 따라 하냐고 할 테고, 골수팬이라면 뭘 어떻게 해도 성에 안 찰 텐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보자, 했어요. 일단 '흉내 내보겠다'는 마음이었죠. 흉내라는 표현이 적확하진 않은데 '미국 드라마처럼 폼나게 한 번 해보자, 그러려고 판권까지 사 온 거 아니냐, 지나친 로컬라이징은 오히려 실패하기 마련이다.' 각색도 작가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기보다 원래 작품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대로 베껴 썼다, 번역가를 구하지 그랬냐'는 말도 들었는데, 원작 대사가 진짜 좋은데 비싼 돈 주고 사 와서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원작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려고 했어요.

대신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최고의 로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더 높은 자리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둬야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도록 도우면서 '무조건 정의'만 내세우진 못할 거 아니에요. 고민은 하겠죠. 그런 고민은 원작에도 있어요. '그렇게 만국 공통인 고민을 담아내자. 양심이 있다면 그들도 결국 마지막 선에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도 한쪽은 이기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지만 그에게도 정의롭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그걸 버렸다기보다 그런 식으로는 이 사회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또 한쪽은 누구보다 가슴 뜨겁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으로 해서 나중에 둘의 캐릭터를 서로 교차시켰죠. '옆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다면 회사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도, 이 세상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 그게 다였어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선 하나를 지키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자는 거.

거창한 정의를 내세우기보다 내 옆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김정민 작가. 욕심을 버리고 이 하나만 얘기하자, 마음먹고 시작했건만 영화 연출과 시나리오 작업을 해오던 그에게 방송 드라마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쿨하게,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자 했는데 시청자들은 착하고 정의롭기만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영화와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죠. 영화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대본을 처음 쓸 때는 어디까지 써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연출 대본을 써요. 서사가 아니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과정이 몇 년이나 걸렸어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는 영화를 하는 동안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 달을 겪었죠. 제가 보기와 달리 유리멘탈이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커뮤니티 게시판에 쓱 한 번 들어가봤어요. 와, 저는 사람이 아니던데요(웃음) 1회인가 2회 나갔을 때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딱 한 마디였어요. 'ㅋㅋ 데뷔하자마자

절필각.' 근데 그건 되게 양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재밌는 건 9회, 10회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사라져요. 관심 없으니까 안 보겠죠.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때부터는 응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시청자 중에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몰래 감춰놓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랄까 눈물 날 정도로 감동했고 성취감, 뿌듯함이 있었어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슬쩍 묻어두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걸 발견해내서는 '이건 조심해야 돼. 우리 말하지 말자.'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자고 작가분이 그렇게 썼나 봐.' 고통이 있는 곳에 즐거움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청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김정민 작가의 글쓰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이제 알죠. 시청자는 되게 영리하고 학습이 많이 됐지만,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 더 친절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 정도면 다 아실 텐데…' 했던 부분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땐 '아, 내가 연출도 설득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시청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하는구나' 하고 배웠죠. 대본을 쓸 때도 너무 장황하게 과정을 설명하면 '이거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힘들 거 아니야. 좀 더 친절해야지' 하는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배워가고 있어요.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지 10년 만에 영화감독으로 데뷔했고, 다시 10년을 노력해서 드라마작가가 된 김정민 작가. 하지만 그의 꿈은 의외로 다른 데 있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배우가 될 거예요. 무조건. 어릴 때 꿈이 배우였거든요. 집 앞에 극장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맨날 봤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너무 멋있었고 테렌스 힐이 주인공으로, '총잡이 튜니티'로 나오는 서부영화 보면서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서 채플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가 촬영하고, 자기가 음악 작곡하고, 자기가 편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겠는데?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꿈을 꿨죠. 그게 허무맹랑한 꿈이란 걸 군대 제대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이랑 똑같이 스무 살부터 28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무명배우 생활을 하다가 마흔여덟에 늦게 피는 배우가 된다고 하면 할래?' 저는 해요. 결국 우리가 보는 건 영상인데, 그 영상 안에는 오롯이 배우만 있잖아요. 우리 기억에 남는 건 오로지 배우예요. 어릴 때 꿈….

어릴

때는 배우가 되는 꿈을 꾸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문예반에서 시를 쓰다가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해 영화 일을 하다 드라마작가로 제2의 인생을 연 김정민 작가. 그러는 동안 그의 곁을 꾸준히 지켜준 건 돌아보니 드라마였다. 마치 그의 변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드라마를 잘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건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 했던 게 항상 드라마였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발리에서 생긴 일〉 〈네 멋대로 해라〉 이런 드라마들은 본방사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죠. 〈도깨비〉랑 〈시크릿가든〉도 좋아해요. 저 김은숙 작가님 팬이에요. 묘한 게 연출을 잘하는 영화감독한테는 질투가 나는데 김은숙 작가님한테는 질투가 아니라 그냥 리스펙, 어떻게 똑같은 걸 저렇게 잘 쓸 수 있지.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페이스북 〈먹킷리스트〉 운영자 황정연 작가



글 김명호 편집위원
사진 김선미
장소협조 합정 카페앤덴



그녀를 만나러 가던 날은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이 맑았다.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뽀얀 구름이 반갑고 성마르게 먼저 꽃봉오리를 터뜨린 목련에 가슴이 설렜다. 조만간 순백의 아름다운 꽃이 피겠지.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생각이 그 꽃에서 끝나지 않고 꽃이 지면 사람들에게 잊힌 채 묵묵히 서 있을 나무가 보인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송작가〉에 새롭게 신설된 〈인생 2막〉은 방송작가로 활동하다 진로를 바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선배 작가들을 만나 봄으로써, 인생 2막을 고민하는 현업 작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시작한 코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해오신 방송 활동을 조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 2막이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후배들 많은데 제가 인터뷰해도 될까 조심스럽네요. 저는 1989년에 구성작가로 방송을 시작해서 5년쯤 지난 다음부터는 다큐멘터리 작가로 20년 넘게 활동을 했었어요.

글을 쓰다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원래 음식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방송작가를 시작해서 한 7~8년까지는 성취감에 즐겁게 일했는데, 그때부터 방송작가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선택지는 제작사밖에 없었어요. 선배님이 하는 제작사에서 기획을 도와드렸는데 제작사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경기도 정책 홍보 쪽에서 일했는데 의외로 저한테 잘 맞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다큐멘터리라는 게 공적 가치를 가지고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건데 그게 정책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말로만 대안 제시를 하는데 정책은 그걸 실행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라 몇 년 재밌게 일했어요. 그 와중에 김옥영 선배님이랑 스토리텔링 연구소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하다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 시작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패션 쪽이었어요. 그날그날 입을 걸 코디네이션 개념으로 콘텐츠화해서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사용자층이 10대 20대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연령대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마케팅 채널로 이용하게 됐고요. 패션도 관심사지만 음식도 관심이 많아서 〈먹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수익은 잘 나오나요?

처음에 창업했을 땐 사무실도 없어서 6개월 동안 KBS 별관 뒤쪽에 파스쿠찌라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낮 12시부터 7시까지 일했어요. 저랑 동업자, 기획 담당 아르바이트 두 명이요. 그다음 1년 반 정도는 사무실을 쉐어해서 썼고,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2016년 8월에 홍대 쪽으로 사무실을 얻었죠.

처음 패션 애플리케이션을 1년 반에 걸쳐서 데모 버전까지 개발을 했는데, 투자가 꼭 필요한데 투자하겠다던 대학 후배가 투자를 안 해서 일단 보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마케팅 채널로 만들었던 페이스북 쪽에서 홍보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럼 우선 이걸로 생존을 해보자 해서 〈먹킷리스트〉로 시작을 한 게 2016년 봄부터였어요.

〈먹킷리스트〉 수익은 광고 매출이에요. 저희 채널에 7~80만 명의 팔로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하면 〈먹킷리스트〉의 톤앤매너로 기획, 편집해서 채널에 올려요. 광고주는 브랜드 광고주도 있고 홍대와 이태원 쪽 소상공인들도 계시고요.

방송과 SN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치(device) 차이죠. 아직까지 TV는 거실이나 방에 있고 앉거나 누워서 보잖아요. SNS는 주로 모바일로 시청하는데 화면이 작고 시청 거리도 30센티미터 이내고 휴대성이 있어서 차 안에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니까, 시청자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콘텐츠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방송은 편성 받는 피선택자의 입장이고

SNS는 누구에게 검사받을 필요 없이 내가 찍어 내가 게재하니까 완전 좋죠! 아이템 컨펌, 기획안 제출, 회의, 시사, 검열이 1도 없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방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데일리 하나밖에 못 하는데 SNS는 내가 원하면 열 개든 백 개든 게재할 수 있으니까 구멍가게 같은 채널이지만 재밌어요.

방송작가로서의 경험이 이런 창업과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처음 페이지를 만들 때 이미 맛집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맛집 페이지는 그냥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는데 저는 큐레이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군바리들에게 잘해줘야 하는 이유' 이렇게 콘셉트를 잡으면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군인들하고 같이 오면 5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팔로어가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페이스북 사업자들에게 교육할 때 콘텐츠는 〈먹킷리스트〉 봐라, 여기가 정석이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여름부터 페이스북 콘텐츠가 동영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다른 페이지 동영상들은 일반인들처럼 그냥 쭉 찍어서 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우리는 콘셉트를 강화했죠. 예를 들어 치즈버거다 하면 치즈가 줄줄 흘러내리도록 약간 눌러서 빅 클로즈업으로 잡는다든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것들로 재미를 줬어요. 그리고 자막을 넣었어요. 보통 모바일 사용자들은 버스나 지하철처럼 오픈된 공간에서도 이용하니까 동영상을 볼 때 소리를 안 켜고 보잖아요. 그래서 에센스만 뽑아서 카피처럼 자막을 넣었죠. 그런 영상이 호응을 얻자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다 따라 해서 하나의 폼이 됐어요. 그리고 방송작가는 시청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잖아요. 요즘 시청자들은 뭘 좋아하지? 다른 프로그램도 보고, 이건 왜 시청률이 잘 나왔지?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페이스북 시청자들은 뭘 좋아하지? 음식뿐 만이 아니라 여행 관련 페이지도 보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콘텐츠에 노출돼 있는가, 이들의 관심사는 뭔가 끊임없이 간격을 좁혀 갔어요.

인생 2막을 시작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갈증이 있었던 것은 '이게 결국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밤을 새우며 애면글면 글을 써서 결과물이 나오지만 그게 결국 제 것이 아니고 방송사, 플랫폼의 것이잖아요. 그거로 인한 자괴감이 컸는데 이것은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것이니까 제 것인 거죠. 제가 창업할 때가 4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 20년은 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들자고 생각했죠. 물론 공과 과실도 제가 다 책임져야 하고… 방송은 나가도 반응이 거의 없지만 SNS는 댓글 찾아보며 소통하는 재미도 있어요. 콘텐츠 하나 올리면 많았을 때는 댓글이 팔만 개 달린 적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시 출근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12시 출근했다가 다음엔 조금 당겨서 11시, 지금은 9시 반인데 일단 출근하면 일을 하게 돼요. 물론 가끔은 9시까지, 혹은 주말에도 일할 때가 있지만 일단 밤새지 않고 휴일 다 쉬고…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진 게 좋아요.

한때 초반 매출의 10배가 넘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먹킷리스트〉는 최근 페이스북 운영 방침이 바뀌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좁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떠나 개인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는 그녀는, 다양한 아이템과 포맷 속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모니터링 하며 방송 콘텐츠로 만들어내던 방송작가의 경험이 나날이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과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지금까지 이런 드라마는 없었다." 영화 같은 드라마, 드라마 같은 영화가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를 달구고 있다. 넷플릭스 〈킹덤〉부터 OCN 〈트랩〉까지, 장르를 넘어선 리메이크와 제작진 간의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차원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는 왜 지금 크로스오버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까. 점점 더 허물어지는 콘텐츠 경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그 발전 가능성을 짚어본다.

합쳐야 뜬다 : 영화와 드라마의 특별한 만남

Special Theme

01
영화와 드라마 사이,
대안은 원 소스 멀티 유즈
최지윤
뉴시스 문화부 기자

02
영화와 드라마는
왜 서로를 원하게 되었나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

03
드라마가 영화의 '트랩'에
빠진 이유
박세은
OCN 기획PD

04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드라마의 필연적 진화
노동열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01_

영화와 드라마 사이, 대안은 원 소스 멀티 유즈

영화와 드라마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최근 OCN은 영화와 드라마의 포맷을 결합한 드라마틱 시네마 〈트랩〉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넷플릭스는 약 2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 〈킹덤〉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장르로 변용·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지윤
뉴시스 문화부 기자

5년째 방송 연예를 전담하며, 보고 느낀 그대로 쓰고 있다

OCN, 영화 같은 드라마

OCN은 영화 같은 드라마의 선두주자다. 그동안 〈신의 퀴즈〉 시즌1~5(2010~2018), 〈뱀파이어 검사〉 시즌1(2011) · 시즌2(2012), 〈나쁜 녀석들〉 시즌1(2014) · 시즌2(2017), 〈보이스〉 시즌1(2017) · 시즌2(2018), 〈손the guest〉(2018) 등을 통해 장르물의 대가로 거듭났다. 희귀병, 뱀파이어, 형사, 사제, 영매 등 다양한 소재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탄탄한 극본과 섬세한 연출로 완성도를 높였다. 뻔하고 식상한 지상파 드라마에 지친 시청자들은 OCN으로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OCN은 한발 더 나아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진의 협업을 시도했다.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과 함께 선보인 프로젝트 드라마틱 시네마다. 〈트랩〉은 알 수 없는 덫에 걸린 국민 앵커 강우현(이서진)의 충격적인 전말을 그렸다. 영화 〈백야행〉(2009)의 박신우 감독과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TEN〉(2011~2012)의 남상욱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영화 〈완벽한 타인〉(2018)과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2008) 등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이 총괄 프로듀싱했다.

기술의 발전이 허문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

〈트랩〉은 애초에 영화로 기획됐다.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캐릭터를 추가,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남 작가는 "파격적인 소재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영화라는 2시간가량의 호흡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드라마라는 긴 호흡에서는 개연성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캐릭터들의 사연이 중심 사건에 기여해, 스릴러 장르의 본질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시청자들에게 매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모든 회차의 콘티 작업을 했다. 보통 드라마는 극본이 빨리 나오지 않고, 찍어야 할 분량이 많아서 콘티 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박 감독은 영화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 콘티를 그려 의도한 대로 화면 컷(cut)을 나눴다. 보통 미니시리즈가 12~16부인데 비해 〈트랩〉은 7부작으로 짧지만, 빠른 속도감과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로 몰입도를 높였다.

박 PD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 영화는 필름으로 작업하고, 드라마는 ENG로 찍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영상 매체가 디지털화됐다. 기술적인 걸림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예전엔 남의 분야를 기웃거리면 조금씩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트랩〉은 (드라마틱 시네마에) 딱 맞는 포맷에서 즐겁게 작업했다"고 짚었다.

넷플릭스로 전 세계 공략

〈킹덤〉은 영화와 드라마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조선 시대, 죽었던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주지훈)가 굶주림 끝에 괴물이 된 역병 환자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다. 영화배우 류승룡은 악인이자 권력자 조학주, 배두나는 의녀 서비로 힘을 보탰다.

〈킹덤〉은 한국에서 제작한 첫 번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다. 영화 〈터널〉(2016)의 김성훈 감독과 드라마 〈시그널〉(2016)의 김은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지난 1월 15일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1(6부작)이 190여 개국에서 공개됐다.

김 작가가 2015년 처음 작품을 구상해 전 세계에 공개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 후반 작업만 1년 가까이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에서 조선 시대 좀비의 잔혹한 비주얼을 방송하기에는 수위가 높았고, 수백억 원대 제작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다. 2017년 글로벌 동영상 기업 '넷플릭스'와 손잡고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다.

김성훈 감독은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첫발을 디디는 중요한 순간 우리가 선택 받았다"며 "〈킹덤〉은 가장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외피는 서구에서 나온 좀비 장르다. 그렇게 융합된 것이 넷플릭스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것으로 다가갔다"고 짚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영화는 2K로 작업하고 CG 작업을 할 때만 4K로 한다. 하지만 〈킹덤〉은 모두 4K로 작업해 CG 작업만 2~3배의 시간이 걸렸다. 류승룡이 "힘든 한국 영화 세 편 정도를 정성 들여 찍는 느낌"이라고 말한 이유다.

〈킹덤〉은 시즌1 공개 전 이미 시즌2(6부작) 제작을 확정했으며 촬영에 한창이다. 영화 작업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지훈은 "플랫폼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처럼 찍었다"며 "넷플릭스는 주로 작은 화면에서 보지만 영화감독님이 연출해 영화 같은 퀄리티가 나왔다. 물론 제작 환경이 영화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6부작 드라마인 〈킹덤〉은 300분 분량의 영화 같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원 소스 멀티 유즈

최근 종방한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는 2012년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감독 추창민)를 리메이크했다. 원작과 설정은 같지만, 스토리와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주인공의 나잇대가 이병헌에서 여진구로 스무 살 넘게 어려지면서 새로운 인물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섬세한 각색과 세련된 연출로 같은 듯 다른 느낌의 웰메이드 드라마가 탄생했다.

반면 OCN에서 시즌2까지 방송된 〈나쁜 녀석들〉은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감독 손용호)로 재탄생한다. 시즌1의 주역인 마동석, 김상중, 강예원이 그대로 출연, 원작 팬들에게 반가움을 안겼다. 최근 〈손 the guest〉 역시 영화화가 확정됐다. 드라마 주인공인 김동욱과 김재욱, 정은채 모두가 합류하

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영화는 TV보다 표현방식과 수위가 자유로운 만큼 좀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원 소스 멀티 유즈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화 〈신과 함께〉(감독 김용화)를 빼놓을 수가 없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며, 1편 〈신과 함께–죄와 벌〉(2017 · 누적 관객 수 1,441만 1,675명), 2편 '신과 함께–인과 연'(2018 · 누적 관객 수 1,227만 6,115명)을 동시 제작해 개봉, 총 2,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드라마, 뮤지컬, 연극까지 장르를 확장해 '한국판 해리포터'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영일 평론가는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며 "대중들은 장르를 구분 짓기보다 재미있고 신선한 콘텐츠에 눈을 돌린다. 막장 드라마, 가족극 등이 히트 치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이 대중들에게 먹힌다는 인식이 생겼고, 드라마 같은 영화 〈완벽한 타인〉 등이 나왔다. JTBC 드라마 〈SKY 캐슬〉과도 스토리라인 등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또한 "과거 배우들은 드라마보다 영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는 아직도 생방송으로 찍는 경우가 많지만, 영화는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고 3~6개월 동안 공들여 촬영해 완성도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처럼 영화 못지않은 스케일의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조승우 씨처럼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배우들의 경쟁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웹툰, 게임, 드라마, 영화 등 경계를 허무는 원 소스 멀티 유즈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02

영화와 드라마는 왜 서로를 원하게 되었나

대중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한다. 놀라운 반전, 색다른 영상미, 파격적 연기 변신, 독특한 구성 등 호평이 찬란할수록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현재를 뛰어넘을 해법을 더 치열하게 찾아내야만 했다. 그중 하나가 리메이크였다. 이미 성공한 콘텐츠는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 보였고, 원작이 있는 콘텐츠는 변주의 폭이 넓어 보였다. 그 연결고리에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

오리콤에서 사사편찬, 홍보,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 담당
동아텔레비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서
홍보, 방송 정책, 채널사업업무 담당
2006 – 2012 조선닷컴 〈드라마 살롱〉 연재, 2015 – 2016 서울 신문〈컬처 살롱〉 연재
주간조선, 한국일보, 국민일보, joins닷컴 등에 방송 관련 글 연재
현재 MBC 시청자 평가원으로 활동, 인사이드 케이블 〈케이블 살롱〉 진행
저서 〈기자가 말하는 기자〉(공저), 〈드라마의 모든 것〉(공저)

영화와 드라마, 그 만남의 역사

영화와 드라마의 만남은 1956년에 시작되었다. 성우들의 명연기와 미국식 연속극 제작 시스템을 배워온 제작진들의 연출은 〈청실홍실〉(KBS)[1]을 공전의 히트작으로 만들었고 국내 최초로 영화화된 라디오 드라마라는 영예를 안겨주었다. 이후 1978년 TV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라디오, TV, 영화, 가요까지 석권하는 전무후무한 히트 기록을 남겼다. 기획부터 다른 장르로의 확장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남사 작가의 원작은 당연한 듯 자기 확장을 이어갔다. 1970년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아씨〉(TBC)는 방송이 종영되기 전부터 영화로 제작되었고, 영구와 분이의 일대기를 그린 1972년의 화제작 〈여로〉(KBS) 또한 1986년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와는 달리 영화가 드라마로 제작된 경우도 있다. 1967년 국책 홍보성 영화로 제작된 〈팔도강산〉이다. 3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후 〈속 팔도강산〉 등 4편의 속편이 연달아 제작된 이 영화는 1974년 〈꽃피는 팔도강산〉(KBS)이란 타이틀의 드라마로 리메이크 되었다.[2]

그렇게 영화와 드라마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2000년에는 〈종합병원〉(MBC)이 〈종합병원 더 무비 – 천일동안〉으로, 2006년에는 〈올드미스 다이어리〉(KBS)가 동명의 영화로 자기 변신을 시도했다. 의미 있는 흥행 실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3] 단순한 원작 판권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같은 감독[4]이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장르 간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그러다 2009년 영화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아이리스〉(KBS)를 영화와 동시에 제작했다. 드라마 제작 후 영화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하나의 소스를 드라마와 영화에 맞춰 각각 편집하는 방식이었다. 제작비 200억 원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총격씬 촬영 등 많은 화제를 남긴 〈아이리스〉는 종영 후 일부 추가 촬영과 편집을 통해 〈아이리스 더 무비〉가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드라마와 영화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었지만, 결말을 달리하며 장르 간 차이를 두려 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드라마로 성공한 콘텐츠들이 영화로 리메이크되어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쉽지 않았다. 대중들의 문화 소비 성향의 차이

---

1) 라디오 드라마 〈청실홍실〉 : 방송사 KBS, 연출 이경재, 출연 장민호, 정은숙, 고은정 등
영화 〈청실홍실〉 : 제작사 서라벌영화 공사, 감독 정일택, 출연 이민, 엄앵란, 주증녀 등
TV 드라마 〈청실홍실〉 : 방송사 TBC, 연출 고성만, 출연 김세윤, 정윤희, 장미희 등

2) 영화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김희갑, 황정순이었고, 최은희, 장민호, 박노식, 도금봉 등 당대 인기 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다. 목적성 드라마였던 만큼 대한항공 유럽 취향에 맞춰 해외 촬영까지 하며 기업의 제작 협조도 이끌어낸 드라마였다.

3)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극장 관객수는 〈종합병원 더 무비–천일 동안〉이 8,881명, 〈올드미스 다이어리〉가 856,090명이었다.

4) 〈종합병원 더 무비–천일 동안〉은 최윤석 감독,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김석윤 감독

도 있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현장의 폐쇄성이 콘텐츠 탄력성을 감소시킨 결과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리메이크한 〈왕이 된 남자〉(tvN)는 원작의 구성을 뒤집는 각색을 통해 드라마의 묘미를 살려내며 리메이크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었고, 〈뷰티 인사이드〉(JTBC)도 영화와 달리 주인공의 성별과 직업을 바꿔 드라마적 현실성을 강화하며 이야기 구조를 바꾸니 차별화된 리메이크 드라마가 될 수 있었다.

리메이크를 넘어 장르 간 결합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만남은 〈청실홍실〉처럼 하나의 장르에서 성공한 후 다른 장르로 리메이크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또한 〈아이리스〉처럼 동일한 기획 하에 동시 촬영, 개별 편집을 통해 영화와 TV드라마를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영화와 드라마의 장르 간 결합도 시도되고 있다. 〈트랩〉(OCN)이다. 영화 〈백야행〉을 연출한 박신우 감독과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TEN〉(OCN)을 쓴 남상욱 작가의 만남은 인간사냥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영화적 방법으로 풀어내며 '드라마틱 시네마'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출발시켰고, 드라마 〈다모〉(MBC), 〈베토벤 바이러스〉(MBC)와 영화 〈역린〉, 〈완벽한 타인〉 등을 연출하며 드라마와 영화 두 영역을 두루 섭렵한 이재규 감독의 총괄 프로듀싱은 새로운 나아감에 힘이 되었다.

영화였다면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것이고 드라마였다면 이야기의 가지가 좀 더 많았을 〈트랩〉은 영화와 드라마의 장르 간 결합을 통해 의미 있는 영역을 구축해냈지만, 디렉터스 컷은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드라마 하이라이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아쉬웠다.

올해는 드라마 〈나쁜 녀석들〉(OCN)이 영화 〈나쁜 녀석들–더 무비〉로 개봉될 예정이고, 웹툰 원작의 〈비질란테〉는 드라마와 영화로 동시 제작될 것이다. 안성기 ·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 스타〉와 나문희 · 심은경 주연의 〈수상한 그녀〉도 TV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한다.

왜 영화와 드라마는 서로를 원하게 되었을까

아날로그 시대의 영화와 드라마 간 교류가 '성공한 콘텐츠의 단순 이전'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융합을 통해 제3의 것을 만들어내는 리모델링 이전'이다. 그 시작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있다.

디지털 기술은 고화질, 고기능, 다채널을 가능케 하면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를 변화시켰다. 극장에서 방송으로 향하는 단선적 유통 구조가 케이블, 위성, IPTV 및 푹(pooq)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까지 확장된 입체



◀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리메이크한 〈왕이 된 남자〉(tvN)은 원작의 구성을 뒤집는 각색을 통해 드라마의 묘미를 살려내며 리메이크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었다. 사진 : 필자 제공

적 유통 구조로 변했다. 영화라면 당연히 극장에서 개봉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깨지고 있다. 디지털 TV는 대형화되고, 화질은 HD를 기본으로 3D, UHD까지 향상되었고 고성능 입체 음향에 인공지능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이동 중 안정적 콘텐츠 수용을 실현했다.

기술의 변화로 인해 달라진 매체 환경은 수용자의 콘텐츠 소비량을 증가시켰고, 콘텐츠 평가력을 향상시켰다. 결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수용자의 변화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다량의 콘텐츠를 원했고, 제작진은 리메이크와 장르 간 결합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제작비 면에서도 이런 변화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크다. 보통 미니시리즈는 회당 제작비 4억 원 내외, 총제작비 80억 원 내외이지만 각 방송사 주력 콘텐츠의 경우 총 제작비가 200~300억 원을 웃도는 경우가 늘고 있다.[5] 이를 회수하려면 당연히 유통을 다양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영화와 드라마 동시제작은 계산상 상당히 합리적인 셈법이고, 위험 분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디지털 시대의 대중들은 영화냐, 드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새롭고 재미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콘텐츠인가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를 흔드는 진짜 원인이라 생각된다.

5) 2018년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tvN) 430억 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200억 원, 2019년 제작될 드라마 〈베가본드〉(SBS) 200억 원, 〈이몽〉(MBC) 250억 원, 〈의군〉(KBS) 300억 원, 〈아스달 연대기〉(tvN) 250억 원, 〈나의 나라〉(JTBC) 200억 원

03

드라마가 영화의 '트랩'에 빠진 이유

요즘 집에서 TV를 누가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한다. 지금 10, 20대는 더 이상 본방사수를 위해 시간 맞춰서 TV 앞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닐슨에서 제공하는 시청률 데이터의 시청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박세은
OCN 기획PD

OCN 드라마 〈트랩〉 프로듀서
영화 〈조난자들〉 〈거인〉 〈돌연변이〉 〈여교사〉 〈메소드〉 투자 마케팅 담당
영화 〈소녀〉 〈글로리데이〉 〈우리들〉 투자 마케팅 지원

요즘 TV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1020세대 보다 3040세대의 시청량이 훨씬 많다. 그다음 많은 시청량은 5060세대다. 10년 후, 지금의 20대가 현재의 30대만큼 TV를 볼까. 10년 후까지 가기도 전에, 요즘은 아이 키우는 집뿐만 아니라 신혼 및 1인 가정에도 TV가 없는 집이 많아졌다. 그나마 (내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TV를 통한 본방사수가 아니더라도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핸드폰으로 소위 화제가 되는 콘텐츠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챙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초반 시청률은 저조했으나 온 · 오프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며 시청률과 화제성이 급상승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극장 상황은 어떠한가. 관객 수는 전년 대비 크게 늘지 않아 극장도 고민이란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들려온다. 하지만 1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의 경우, 몇 해 전에 비해 그 숫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게 홍보 포인트로 쓰이곤 한다. 스크린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소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TV의 시청률도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올해 초 〈SKY 캐슬〉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가. 영화 〈극한직업〉이 1월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초 극장을 찾았을 때, 그 주에 개봉한 영화보다 〈극한직업〉이 객석을 더 많이 채운 현상도 봤다. 좋은 콘텐츠라면 영화든 드라마든, 매체와 포맷을 떠나 화제가 되며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본다. 그래서 나는 콘텐츠의 힘을 믿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본다. 나만 그러겠는가. 모든 업계 종사자들이 그러할 것이다.

영화 같은 드라마 만들기

그렇다. 이게 나만 알아낸 해결안이 아니다. 모두가 경쟁하며 좋은 대본을 찾고 있다. 좋은 연출자와 인기 좋고 연기 잘하는 배우와 함께 최고의 스태프들이 만든 드라마를 제일 좋은 시간대에 방영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수의 좋은 콘텐츠들 사이에서 또 더 눈에 띄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그래서 각 채널은 자신들만의 색깔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수많은 채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다.
여러 시도 끝에 장르물의 명가로 자리 잡기 시작한 OCN은 일종의 '센 드라마'들을 많이 선보였다. 액션 스릴러물, 범죄 수사물, 그리고 이제는 엑소시즘물까지, 기존 드라마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장르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또한 로케이션 촬영의 비중을 높이고 촬영과 색 보정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타 방송사 드라마와 비주얼적으로 차이가 느껴지도록 노력해왔다. 그렇게 영화 채널로 시작한 OCN 채널만의 톤앤매너를 분명히 만들어갔다. 그런데 이젠, 이런 장르물을 OCN에서만 다루지 않는다.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타 방송사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무엇을 통해 또다시 시청자들에게 믿고 보는 채널로서의 새로운 볼거리를 줄 것인지에 대해, 또 무엇을 통해 타 채널과의 차이를 줄 것인지 대해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했다. 그래서 시작된 프로젝트의 이름은 'OCN 드라마틱 시네마'.

드라마적인 영화 찾기

간혹 영화 중에 현장 편집본이 4시간 넘게 나왔는데 상영본을 위해 2시간 내로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혹은 2시간짜리 영화를 봤는데 다 해소되지 않고 무언가 이야기를 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든다던가.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의 태생은 2시간 길이의 영화가 아니라 4시간짜리, 혹은 그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하는 스토리적 운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포맷은 영화가 아닌 드라마가 아닐까.

그동안은 16부작의 드라마에 어떻게 영화적인 느낌을 낼까에 대해 고민했다면, 'OCN 드라마틱 시네마'는 영화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이 영화를 어떻게 좀 더 재미나게 드라마적인 호흡으로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래서 드라마틱 시네마의 첫 작품을 찾기 위해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영화 시나리오들을 봤고, 그중에 2시간짜리 영화로 끝내기엔 아쉬운, 이야기를 좀 더 깊고 넓게 펼칠 가능성을 품은 시나리오를 찾기 시작했다.

어떤 시나리오를 만났다. 제목은 〈1mm〉. 주인공 캐릭터 설정이 명확했고, 구성이 가진 반전이 매력적이었다. 이대로 묻히기에는 아까운 시나리오였다. 2시간 내로 풀기 위해 다듬어진 이야기였으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는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고 봤고, 그랬을 때 주제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나리오의 엔딩은 반전에서 끝나지만, 드라마로 확장할 경우 반전 이후의 이야기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영화 시나리오가 가진 재미를 살리면서 가기엔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기존 16부작 트루기를 따라가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최적화된 러닝 타임을 찾기로 하고 감독과 작가가 이야기 전체 회별 구성을 새로이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나온 7부작이란 생소한 숫자. 하지만 제작사에서도 억지로 늘리거나 줄이기보단, 이 이야기를 제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채널에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1mm〉는 〈트랩〉이라는 드라마로 다시 태어났다.

드라마틱 시네마만의 기존 드라마와 차별된 특성을 가지기 위해, 영화 연출 문법을 가진 연출자가 들어오길 원했다. 하지만 영화감독이 영화 호흡과 다른 드라마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주요점은 회별 엔딩에 힘을 줘야 한다는 점이었고, 이 부분은 드라마작가에게 강점이 있었다. 그래서 연출은 영화감독이, 극본은 드라마작가가 진행하는 것이 각 크리에이터에게도 시너지가 됐다.

'새로운 길'이 주는 힘겨움

이 선택을 하기까지, 채널 내부에선 많은 고민과 결정사항이 따랐다. 방송 산업적으로 안정적인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온 16부작의 틀을 깨고, 오로지 콘텐츠만으로 승부를 보자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노출이 보장되길 원하는 광고주 측의 입장이 있다. 드라마 회차 수가 길면 길수록 몇 번 이상, 언제 노출할지 협의하기 쉽고, 회차가 진행될수록 시청률이 점점 오르면 시청층 커버리지도 넓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드라마보다는 회차 수가 많은 드라마를 선호한다. 광고주만 16부작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 제작사의 입장도 예산을 생각하면 긴 편이 낫다. 드라마는 회당 예산으로 산정하여 투입되다 보니, 세트 등 고정비용을 생각하면 단막극보다야 16부작이 낫고, 그 이상 가는 드라마는 더 좋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짧은 길이의 드라마에 특별히 제작사의 이러한 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회당 예산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6부작이든 24부작이든 마케팅의 공력과 비용은 큰 차이 없이 들어간다. 한 달 만에 끝나버리는 짧은 드라마라니, 그렇다고 마케팅을 간소화할 수도 없고 참 힘든 일이다. 여러 입장이 절충되어 안정화 되고 있는 16부작 시장에 판을 흔드는 일이라, 왜 이 힘든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좋은 콘텐츠는 언제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렇기에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통한 좋은 콘텐츠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본다. 크리에이터들도 이러한 판을 깨고 계속해서 정진했으면 한다.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제작 상황도 좀 더 여러 시도를 해봐야 한다. 영화감독이 경험한 영화 작업 환경과 드라마 환경은 대본 디벨롭 과정인 프리 프로덕션에 비해 촬영 진행 중인 프로덕션과 후반 작업인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더 많은 차이가 있다. 요즘은 사전제작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적어도 반 사전제작 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드라마 연출을 해오던 감독에겐 무리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흔히 말하는 방영 기간 중의 실시간 촬영과 편집)를 대비한 상태로 세팅하여 돌아가는 드라마의 스태프 구성과 일정이 영화감독에게는 완성도에 대한 압박감으로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감독의 적응력과 수용력이 필요하다. 혹은 영화와 같은 스케줄과 스태핑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제작 기간이 매우 길어지게 된다. 영화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각자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OCN이 새롭게 추구하는 비전은 'No.1 스토리테인먼트' 브랜드다.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야기의 확장성에 집중하여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영화 산업에 비해 방송은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는 어려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 이것은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그에 대한 경계 나누기가 아닌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가를 두고 접근했으면 한다.

04_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드라마의 필연적 진화

드라마와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콘텐츠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결론적인 표현을 하면, 러닝 타임(running time)의 차이 이외에 딱히 영화와 드라마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나 개념을 떠올리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열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장르의 이종교배, 치열한 생존 전략

1980년대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는 영화감독들에게 연출 기회를 부여했었고, 이진석 PD가 연출한 영화 〈체인지〉가 개봉됐던 시기는 1997년이다. 2006년도에는 한지승 감독의 미니시리즈 〈연애시대〉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면서 영화와 드라마 장르의 이종교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방송인들의 열등의식과 도전정신이 깔려있다. 드라마는 태생적으로 영화적 영상미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사실 새로운 예술 장르의 등장은 기존 예술 장르에는 위기를 의미했다. 사진의 등장으로 복제 기술을 빼앗기며 정체성의 혼돈에 빠졌던 회화, 움직이는 영상을 구현해낸 영화가 등장하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예술적 가치를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진, 그리고 TV의 등장으로 영화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가 블록버스터 〈슈퍼맨〉이 제작되면서야 비로소 영화예술로서의 차별화된 예술적 가치를 살려낼 수 있었던 예술의 순환적 역사는 새로 등장한 예술 장르가 독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생존 노력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의 영화적 영상미에 대한 도전은 제작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한계적 숙명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생방송 제작으로 비유되는 제작방식과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미학적인 성과를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3년도 드라마 〈다모〉는 영화적이었고, 2018년 영화 〈완벽한 타인〉은 드라마적이었다. 동일한 연출가의 능력으로 탄생한 다른 장르의 성공 사례가 함의하는 바는 명확하다. 동시에 드라마 PD가 연출한 〈미스터 션샤인〉은 '영화적인' 드라마라는 성과를, 영화감독이 연출한 〈킹덤〉도 영화적인 '드라마'에 성공하였다. 이는 한 개인의 연출 능력을 넘어서,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기법에 차이가 없음을 함의하는 사례이다. 영화로 준비되던 〈트랩〉은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호평을 받았는데, 이는 소재에 따라서는 영화와 드라마라는 장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사전제작 시스템과 장르 드라마 열풍

영화적 영상미에 열등의식을 느끼던 방송이 영화 같은 드라마 제작에 성공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사전제작 시스템의 일반화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영화와 비교되는 방송콘텐츠 제작방식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생방송 제작 시스템과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을 지적할 수 있다. 대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방영분을 촬영해서 편집해야 하는 제작 환경에서는 영화 같은 영상미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특히 스튜디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연속촬영하는 방식은 '아름답게 찍기'보다는 '빨리 찍기'에 유리한 제작 시스템이다.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 이후에 발생한 중국 한류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사전제작 시스템은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에 영화적 제작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 방송시장에 장르 드라마가 대세를 이루게 된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로맨스 장르 위주의 일본 한류가 침체되는 시기에 OCN과 tvN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 실험이 시도되었다. 〈천일야화〉 〈메디컬기방 영화관〉 〈신의 퀴즈〉 〈뱀파이어 검사〉 〈막돼먹은 영애씨〉 〈특수사건전담반 TEN〉 〈처용〉 〈38사기동대〉 〈나쁜 녀석들〉 〈나인〉 〈미생〉 〈시그널〉 〈오 나의 귀신님〉 〈응답하라1988〉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의 성과는 다시 〈트랩〉 같은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범죄 수사, 스릴러, 판타지 등의 장르물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만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작가, 연출자, 연기자는 물론 미술을 포함한 영상미학 전 분야에 걸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드라마 시장의 변화는 성공한 영화적 연출이나 영화적 미학의 전형을 모방하는 노력에서부터 성과를 만들어나가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과 제작비 규모의 확대

사전제작과 장르 드라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드라마 시장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 아래 진행되었다.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 편집기술의 발달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화제작 현장에서도 멀티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스튜디오를 떠난 야외 촬영 현장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돌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예전 제작방식에서는 OK Shot이 On Air Shot과 동일한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여러 개의 OK Shot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Final Cut을 만들지 결정한다. 즉, 주인공의 한 개의 대사를 여러 앵글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촬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드라마에서 강조하던 대사 중심의 타이트 샷과 영상 중심의 풀 샷을 모두 OK Shot으로 편집자에게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소스의 촬영본이 편집자에게 전달되어도 편집에 그다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편집기술의 발달 또한 드라마의 영화적 영상 구현에 큰 영향요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외부 투자 활성화로 인한 제작비 규모의 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드라마의 완성도를 가장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분 단위 제작비' 개념이다. 중국 제작사와 넷플릭스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2016년부터 사전제작과 영상미를 토대로 한 작품성 강한 작품들에 대한 갈증이 풀리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생산방식은 드라마의 영화화를 더욱 촉진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다. 새로

운 플랫폼의 등장은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해 이제 거의 방송사의 패배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MCN, OTT, 유튜브 와 함께 디즈니,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해 TV는 이전 영화가 그러했듯이 필연적으로 생존을 위한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MCN과 OTT, 다운로드 시장 같은 새로운 소비 방식의 보편화로 인해 이제 TV에 편성되던 드라마는 생존을 위해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영화관에 걸리지 않아도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영화산업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화와 드라마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러닝 타임의 차이 이외에는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영상미학적인 측면에서의 구별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서로의 장점을 경쟁적으로 흡수하는 시대

너무나도 드라마 같은 〈완벽한 타인〉의 성공, 잘 만들어진 드라마의 규모보다도 크지 않은 〈극한 직업〉의 영화화에서 알 수 있듯이, 16부작이 가능하면 굳이 영화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작품들이 TV에도 영화관에도 더욱 많아지는 것은 환경적인 필연이다. 분 단위 제작비 규모의 확대가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것이고, 영화인들의 드라마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1990년대를 풍미하던 천재적인 영화감독 데이빗 핀처가 연출한 〈하우스 오브 카드〉에 열광하는 것처럼, 이제야 우리도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는 드라마에 열광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드라마의 영화화는 영화예술에 있어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넷플릭스에서 소비되는 콘텐츠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그냥 소비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드라마 같은 영화는 물론 영화 같은 드라마는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만드느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완성도를 유지하느냐의 문제이고, 러닝 타임에 따라 어떤 매체에 유통시키느냐의 문제만이 남는다. 장르의 융합, 소재의 차용, 기술의 공유는 영화와 드라마의 예술적 가치의 차이보다는 러닝 타임의 차이라는 의미만이 제한적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작품의 길이에 따른 작가의 역량 차이나 구분은 여전히 유의미하겠지만, 연기자나 연출자의 역량 차이 구분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와 드라마가 서로의 장점을 경쟁적으로 흡수하는 현상은 이미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제야 바야흐로 '방송예술'이라는 용어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 문턱을 지나고 있다.

방송 유감

높아지는 제작비, 수출에 달려 있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스오피스 경제학≫ 저자

공급과 수요의 균형

최근 TV 드라마가 크게 늘었다. 종합편성 채널들이 채널 강화를 위해 드라마 편성을 늘리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드라마 강화로 시청률 회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02편, 2015년 98편, 2016년 89편 제작되었던 드라마의 제작 편수는 2017년에는 109편으로 크게 뛰었고, 2018년에는 약 114편의 드라마가 편성되었다. 2019년에도 약 110~130편의 드라마가 제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종합편성 채널의 적극적 드라마 편성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 1차적으로는 tvN, JTBC 등이 연달아 드라마 히트작을 내면서 채널 이미지를 높인 것이 다른 채널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 심사 강화 방침을 세우자 존폐의 기로에 선 종합편성 채널들이 채널의 '종합'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마 편성을 적극적으로 늘린 탓도 있다.

어떤 산업에서든 시장의 공급량이 갑자기 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는 상품을 만들 원재료 조달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시장의 수요 문제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제한된 배우나 작가, 스태프들의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만 늘어나면 제한된 작은 시장을 쪼개 나눠야 하는 위험도 커진다.

영화 산업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공급량을 '관리'해 온 측면이 강하다. 영화 시장은 시장 수요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평균 영화관람 횟수는 4.2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영화 점유율도 50%를 웃돌아 미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영화 비율도 가장 높다. 하지만 인구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영화의 수출 실적은 그다지 높지 않다. 수출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영화 산업의 영향력과 비교하면 수출액은 미미하다. 때문에 영화 산업은 제한된 시장 안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 왔다. 천만 관객 영화가 한 해에 한두 편 정도씩은 반드시 탄생하도록 집중력을 발휘하면서도, 너무 많은 영화가 좌판에 깔리지 않도록 제작 편수도 조절해온 것이다.

특히 영화는 수익률 격차가 크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전략이 주효했다. 흔히 영화를 주식 투자에, 드라마를 채권 투자에 비유하곤 한다. 영화는 관객이 많이 들면 수익도 비례해 늘어나 어마어마한 수익률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영화 전체를 살펴보면 제작비 수준에 못 미치는 적자 영화가 더 많다. 2018년의 경우 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 40편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3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익률 50%가 넘는 고수익 영화들 덕에 적자 폭을 줄여 평균 수익률을 겨우 맞췄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안에 한두 종목만 크게 수익을 올리면 나머지는 조금 떨어져도 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려면 포트폴리오 안에 적절한 숫자의 종목이 있어야 한다.

질적 향상에 뒤따르는 제작비 상승

하지만 드라마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전통적으로 드라마는 적자의 위험도 없지만 큰 수익도 없는 분야였다. 보통 드라마 한 편이 방송되면 편성 방송사는 제작비의 70% 정도를 제작사에 방영료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가 방영 후로 미뤄져 자금 필요 시점과 딱 맞지 않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70%는 확보된다. 방영 때 시청률이 높으면 광고가 많이 붙지만 광고비는 방송사의 몫이다. 대신 제작사는 드라마에 삽입하는 PPL(간접 광고료), 주문형 비디오(VOD)나 케이블 판매료,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려 왔다. 이 부분이 제작비의 30%, 혹은 그보다 조금 많은 정도였다. 즉, 영화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손실 위험도 낮아 채권 투자와 비슷하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사들은 시장 수요를 크게 고민한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제작비 정도를 회수하는 수준이라 방송사가 방영료만 지급한다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의 드라마 편성 증가는 이들에겐 좋은 기회였다. 새로운 시도도 가능하고, 새로운 작가를 늘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드러났다. 시청률을 낼 수 있는 작가, 배우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극소수의 유명 작가들이 한 해에 몇 편씩 드라마를 쓸 수는 없다. 군대에 갔다는 남자 배우들은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것인지, 주연 배우 부족 현상도 커졌다. 공급 증가로 원재료 조달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가끔 예상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곤 한다.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다 보니 좋은 작가, 좋은 배우에게는 작품을 고를 기회도 생겼다. 이들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작들도 터지기 시작했다. 양질 전환의 법칙에 따라 질적 개선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작들은 어마어마한 제작비 속에서 피어났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8년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는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총 제작비는 430억 원. 24부작이었으므로 편당 제작비가 약 18억 원 정도였다. 미니시리즈용 드라마의 평균 제작비가 약 5억 원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위축된 광고시장의 영향

일반적인 드라마 제작구조를 생각하면 이 같은 제작비가 투자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드라마 제작비의 70%를 편성 채널의 방영료로 충당하는데 이 몫은 크게 늘기 어렵다. 16부작 드라마의 편당 제작비가 5억 원이라면 방송사는 1회에 3.5억 원을 방영료로 지급해야 한다. 16부 전체로 치면 90억 원 정도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드라마의 본방송 및 재방송 때 광고비가 대략 이 수준이 되어야 방영료를 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 광고 사정을 생각하면 이 금액이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TV 시청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방송을 찾아 보는 비율이 늘면서 TV 방영 시간대 시청률은 떨어졌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 집행이 어려워진다. 광고주들이 시청률이 떨어지는 TV 말고 인터넷 등 다른 매체에 광고비를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보통 드라마 한 편당 제작비 7~8억 원 수준이 방송사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방영료라 이야기하곤 한다. 화제성도 높고 시청률도 높아 방영 앞뒤에 광고를 꽉꽉 채울 수 있다는 가정에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작비 30% 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제작사는 이 30% 부분을 PPL, 해외 수출 등으로 채워 왔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은 방영 전 선판매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전 제작 방식이 좋다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쪽대본을 써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이 때문이다. 사전에 계약되지 않은 광고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니 미리 찍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수출 등 선판매가 방영 전에 이뤄져 제작비를 모두 마련할 수 있어야 사전 제작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OTT 기반의 수출 효과

따라서 높은 제작비를 조달하려면 이 '30% + α' 부분을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 화답하고 있는 게 오버 더 톱 서비스, 이른바 OTT다. OTT란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의 넷플릭스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의 푹(pooq), 옥수수, 올레TV, 티빙, 왓챠 등도 OTT에 해당한다.

드라마 산업에서 OTT가 변화의 핵심이 된 것은 '수출' 때문이다. 현재 제작비 조달 구조에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해외 판매 비중뿐인데, OTT가 판권 선판매 등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OTT로만 해외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거에 OTT 없이도 드라마 수출은 해왔지만 그 방식이 쉽지 않아 수출금액이 그리 높지 못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는 전 세계에 망을 가지고 있어 이곳 한 곳에만 팔면 세계 모든 나라에 파는 수고도 덜고 수출금액도 높일 수 있다. 세계 체인을 가진 해외 도매상에게 한 번에 파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과 같은 대작 드라마도 방영 전 넷플릭스에 판권을 선판매해 높은 제작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 판매액이 무려 제작비의 70%인 약 300억 원이었다. 최근에는 〈킹덤〉과 같이 아예 제작비를 전부 투자해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하기도 했다.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드라마들이 넷플릭스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넷플릭스 외에 세계적으로 다양한 OTT들이 등장하고 있어 반갑기도 하지만 우리도 능동적으로 드라마를 판매하는 구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취향에 맞추는 것도 이상하고, 맞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처럼 거대한 도매상도 있어야 하지만 작은 중소 도매상들도 있어야 다양한 드라마들이 골고루 판매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새로운 판매 구조를 갖춰야 양질의 드라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진 : tvN 〈미스터 션샤인〉 홍보 포스터

저작권의 기원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방송작가협회 고문변호사

출판특권의 배경

자고로 예술 활동은 귀족층이나 종교계의 후원(patronage)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는 대체로 교회 소속의 수도자이거나 왕실이나 귀족의 고용인이었다. 당시의 예술가는 창작 활동의 주체라기보다 주문형 작품을 완성하는 숙련공이었으니 자연히 작품은 후원자의 소유가 되었다. (르네상스를 벗어난)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인물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의 전 작품이 교회법에 따라 바티칸 소유인 것이 예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출판시장에서 먼저 바뀌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중엽 유럽에서 인쇄술이 보급되고 문학작품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귀족층을 대신하여 출판업자가 작가의 후원자로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군주와 교회는 인쇄술의 보급으로 빚어질 기득권 질서의 동요 가능성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출판특권(printing privilege)이다. 군주와 교회는 특정 인쇄/출판업자에게만 출판의 특혜를 주어 불량한 사상의 발호를 막고자 하였다. 인쇄/출판업자의 경제적 동기와 인쇄물의 보급을 검열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1469년 베네치아 공화국이 독일 출신의 모 씨에게 베네치아와 그 통치지역에서 5년간 인쇄/출판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준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특권은 군주가 허락한 것이므로 군주의 통치권을 벗어나면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특히 현재 독일지역을 관할하던 신성로마제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왕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자연히 개별 왕국 밖에서는 특권을 받은 인쇄/출판업자와 그렇지 않은 업자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특권을 받은 파리나 런던의 인쇄/출판업자와 지방 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앤 여왕법의 등장

17세기 후반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는 절대왕정에 일격을 가한다. 절대군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노동의 성과를 소유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는 '자연권'에서 나온다고 설파하였다. 로크류(類)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바람에 편승하여 무단 복제도 성행하였다. 런던의 '출판업자 조합(Stationers' Company)'이 군주에게 투자 보호를 요청한 결과 1709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불리는 앤 여왕법(Statute of Anne)[1]이 발의되어 1710년 의회를 통과하였다. 출판업자 조합의 관습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출판특권의 흔적이 보이지만 근대적 저작권 입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2] 앤 여왕법은 보호 대상을 '책'에 한정하면서 첫째, 아직 인쇄되지 않은 저작물(미발행저작물)의 저작자는 발행일로부터 14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가 이 권리를 비록 제삼자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생존하는 경우 14년 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고,[3] 이미 출판된 책(발행저작물)에 대해서는 21년간 출판업자를 보호하였다.[4] 둘째, 침해자에게는 몰수 또는 벌금의 제재가 인정되었다. 셋째, 책 제목이 출판업자 조합에 등록되지 않으면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법의 제정 목적이 출판/인쇄업자의 보호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신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5]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

유럽 각국의 인쇄특권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구제도의 타파를 목적으로 하였으니, 혁명의 열기는 군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인쇄/출판업자에 대한 특혜까지 쓸어버렸다. 열에 들뜬 혁명가들은 파리 중심의 계몽주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갈망하였고, 소설이든 희곡이든 연설문이든 문학적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면 폐지하는 몰상식을 과시하였다. 삽시간에 무허가 재인쇄(reprint)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반면 인쇄물의 수준은 엉망이 되었다. 이런 무모함은 오래 갈 수가 없는 법이다. 1791년과 1793년 '천재의 권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저작권 제도가 도입된다. 1791년 프랑스법은 희곡의 저작자에게 저작자의 '생애' 및 '사후 5년간' 공연을 올릴 권리를 인정하였다. 국립극장 극작가 몇 명이 혁명의 회에 참여한 결실이었다. 1793년 법에서는, 작곡가, 화가, 판화가, 소설가 등 모든 예술가에게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10년'간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을 추가하였다. 작가가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면 작품 사본 2부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프랑스의 저작권 혁명 입법은 1804년의 나폴레옹 법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1957년 현

대 프랑스 저작권법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프랑스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6]

프랑스법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삼은 점이나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droit d'auteur)로 파악한 점에서 영국 앤 여왕법과 관점을 달리하였다.[7] 저작자의 권리를 자연법에 기초한 인권으로 파악하는 프랑스의 태도는 유럽 각국에 확대되어 1886년 베른협약 성립 무렵에는 – 보호 대상, 보호 기간, 번역권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 대부분 유럽 국가가 저작권법을 가지게 되었다.[8]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저작권 입법이 늦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통치권이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제국(Reichstadt) 도시에만 적용되었으므로, 독일의 전체 영역에서 통일된 저작권 관념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9] 그러나 금속 인쇄술로 대량출판 시대를 맞본 곳은 독일지역이었다. 가장 큰 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의 전통은 이미 중세에 시작하였다. 신성로마제국은 일찌감치 1592년 인쇄술, 출판물 검열, 도서 거래 규제, 인쇄용지의 질까지 상세하게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821년 헤겔은 '권리의 철학에 대한 원칙(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에서 정신적 결과물(Geistigen Produktion) 즉, 지적 재산(Geistiges Eigentum)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재산권이란 단순히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서 나아가 주관적 자유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문학적 재산, 즉 저작권은 개인의 자유의지의 표현물이라고 주장하였다.[10]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한 수씩 주고 받으면서 근대 저작권 제도가 수립되었다.

1) Queen Anne의 재임 중 통과되었고 'Copyright Act of 1710'으로도 불린다. 긴 명칭은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
2) 大棚照一, 『國際知的財産權法』, 日本評論社, 2009, 60면
3) 결국 앤 여왕법의 시행으로, 신간에 대하여는 출판업자를 14년간 보호하고, 14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때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저작자는 이후 14년간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4) http://www.historyofinformation.com/detail.php?entryid=3389
5)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17, 45,46쪽
6) 조희경,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혁적 분석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2., 44,45쪽
7) 일본의 大棚照一은 『國際知的財産權法』 60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저작물의 발행 혹은 등록과 연계하지 않은 점을 프랑스 혁명입법의 특색으로 설명하나 조희경 교수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혁적 분석연구』 45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납본이 필요하고 이것이 일종의 등록제도라고 설명한다. 저작권 등록을 소송요건으로 하는 방식은 현재 미국 저작권법이 취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8) 大棚照一, 앞의 책, 60면
9)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절대군주가 아니었다. 황제는 제후국의 여러 군주가 투표로 선출하였다.
10) 조희경, 앞의 책, 89~106쪽

전 국민이 애청하던 어린이 버라이어티쇼

〈모이자 노래하자〉



유수호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1957 대전KBS 전속 성우, 어린이합창단 지도
1960 서울 MBC–R 어린이 프로그램 고정집필
1963 KBS–R 〈후라이보이아저씨〉 〈방학일기〉
1967 CBS–R / 극동방송 주간드라마 집필
1976 KBS–R 어린이연속극 〈아빠의 얼굴〉
KBS–TV 〈애기들차지〉 〈영이의 일기〉 〈부리부리박사〉
뮤지컬드라마 〈모이자 노래하자〉 〈TV유치원 하나둘셋〉 등 다수 집필

어린이 버라이어티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노래부르자…."

신나는 〈모이자 노래하자〉 주제곡이 어린이 초등학교 강당에서 울려 퍼진다. 〈모이자 노래하자〉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면 한 달 전에 KBS로 출연신청을 해야 한다. 출연 날짜와 시간을 연락받으면 음악 교사는 KBS로 찾아와 그날 노래할 악보 전체를 받아가 부지런히 연습시킨다.

3주 후 PD와 작가, 그리고 안무담당자는 학교로 찾아가 연습한 노래를 듣고 평가하고 잘못된 곳을 지적하고 곧이어 안무지도를 시작한다. 저녁 늦게까지 노래와 안무를 마친 일행은 곧바로 방송국으로 들어와 제작 회의에 들어가고 필자는 밤을 새워 구성 집필을 한다. 다시 일주일 후 출연할 학교 어린이 100명은 대형버스를 타고 KBS로 온다. 커다란 스튜디오로 안내된 어린이들은 휘황한 조명과 원형으로 꾸며진 대형 세트에 놀란 듯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는다.

우측에는 서봉석과 그의 악단이 자리 잡고 라이브로 연주한다. AD가 모든 출연진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드라이 리허설에 들어간다. 밴드에 맞춰 〈모이자 노래하자〉 주제곡, 그리고 순서대로 20곡이 넘는 합창, 독창, 중창곡을 맞추어 본다. 합창단에는 전체가 앞으로 나와 노래와 율동을 한다.

출연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신나게 노래한다. 리허설이 끝나자 곧이어 "녹화 들어갑니다. 스탠바이" 하는 연출자의 목소리에 따라 AD 사인에 맞춰 밴드의 전주가 시작된다. "랄랄랄 랄라" 전체 노래가 시작되면 어린이들은 앉은 자세로 손동작 율동을 한다. 그러자 좌측에서 MC 뽀빠이 이상용이 나오면서 "모이자 노래하~자~" 독창하면 우측에서 "우리 모두 즐겁게~" 하며 MC 박설희 언니가 나온다. 다시 뽀빠이가 "모~이자 노래하~자~" 하면 모든 어린이가 "야아~" 하고 외치면서 앞으로 뛰어나와 "랄랄라랄라" 하고 신나게 노래 율동한다. 주제곡이 끝나면 어린이는 손뼉을 치면서 좌석으로 돌아가고 카메라는 MC석으로 줌-인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빠이 이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설희 언니예요." 더블MC 두 사람은 말끔한 해군복처럼 생긴 특유의 옷차림으로 활짝 웃으며 말한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러가고 싶은 심정이고요." "놀러왔잖아요." "어딜요?" "이렇게 노래하는 곳으로 놀러왔다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가 '밖으로 나가 놀자'니까 여기가 놀이터군요." "맞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 놀자~" 하고 MC 퇴장하고 밴드의 전주가 울리며 전체 어린이 앞으로 나와 줄넘기와 공을 흔들며 합창한다.

"밖으로 나가 놀자 시원한 바람 솔솔솔 밖으로 나가 놀자 햇님은 방끗, 그네뛰기 미끄럼은 재미나지요. 숨바꼭질 말타기는 더 재미있죠…." 노래하는 출연자도 즐겁고, 시청하는 시청자도 정말 신난다. 주방에 있던 어머니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동심으로 돌아가 크게 노래한다.

〈모이자 노래하자〉는 전국으로 방영되며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줄지어 출연신청이 쇄도하고 특히 독창 중창 순서에 뽑힌 아동은 인기 상승한다. 도중에 전체 합동 게임 순서가 진행된다. 뽀빠이와 설희 언니는 어린이들과 함께 뒹굴고 쓰러지고 웃음바다가 된다. 카메라맨도 바쁘다. 3대의 카메라가 날렵하게 화면을 잡고 전체 합창 때에는 커다란 크레인 끝에 카메라와 카메라 감독이 타고 전후좌우, 상하로 이동하며 앵글을 잡는다. 땀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은 덩치 큰 크레인을 손으로 올렸다 폈다 하는 보조카메라맨이라 웬만한 장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요즘 같으면 붐스탠드에 매달릴 작은 디지털 무인카메라로 전후좌우, 상하로 마음대로 조정하면 화면 끝내주는데 역시 아날로그 시대의 크레인 카메라, 시대적인 유물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이 애청하던 어린이 버라이어티쇼 〈모이자 노래하자〉는 틀림없이 〈누가 누가 잘하나〉처럼 장수 프로그램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약 2년 방영되다가 안타깝게 중단됐다.

아빠가 부르던 노래

허영구 PD가 우리 팀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KBS 어린이합창단을 동원해 야외 로케이션을 나가기로 했다. 흘러간 옛 동요를 더듬는 〈아빠가 부르던 노래〉를 제작해 보기로 한 것이다. 우선 노래 선곡을 했다. 〈오빠 생각〉 〈따오기〉 〈낮에 나온 반달〉 〈퐁당퐁당〉 〈꼬부랑 할머니〉 등 셀 수 없이 많다. 30여 곡을 어린이합창단에게 주어 연습시키고 나는 곧바로 구성에 들어갔다. 우선 전무송 씨를 주연으로, 아역 배우 한 명을 섭외했다. 아들 돌이가 아빠를 졸라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자 아빠는 "글쎄" 하고 망설이다 "오, 생각났다. 〈오빠생각〉 〈반달〉." "어? 〈오빠생각〉 〈반달〉 나도 알아요", "그래? 핫핫" 하고 웃을 때 〈아빠가 부르던 노래〉 주제곡 전주가 시작된다. 돌이는 일어나 독창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빠가 부르시던 노래,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빠가 부르던 노래, 어떤 노랠까, 어떤 노랠까, 오늘은 아빠와 함께 들어봐야지, 불러봐야지, 아빠가 부르던 노래" 아들과 아빠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다정하게 노래를 하며 타이틀이 뜬다. 이 노래는 필자가 작사, 작곡한 곡이다. 우리는 30여 곡의 어린이 합창곡을 미리 녹음하며, 야외녹화차와 대형버스를 몰고 어린이 대공원, 임업시험장 등을 야외 로케이션으로 촬영했다. 부족한 화면은 자료화면으로 인서트 하여 모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격려해줬다.

콩돌이와 떡돌이

주거지를 도심에 둔 아이나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사는 아이들 모두 곡식의 성장 과정을 교과서에서 배워 알지만 농사일을 직접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또 일 년 내내 지켜보지 않은 이상 농부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알 리 없다. 그래서 추석특집으로 기획해 본 뮤지컬 드라마가 〈콩돌이와 떡돌이〉다. 무대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중간 농촌 지역이다. 부모들은 콩 농사를 크게 지어 풍년을 맞아 온 동네 사람 모두 모여 풍년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춤추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S#1 (콩밭)
온 가족이 춤추며 노래한다.
〈타이틀 뜬다〉
"어린이 뮤지컬 콩돌이와 떡돌이"

S#2 (집마당)
콩돌 떡돌 가방 메고 뛰어든다.
할머니 떡쟁반 들고나오다 아이들과 부딪혀
떡이 땅에 떨어진다.
주워담는 할머니
아버지 들어온다.
할아버지 들어온다.
할아버지 노래 마치고 주머니에서 콩 씨앗 몇 개씩
아이들에게 나누어준다.

할머니 웃으며
할머니 퇴장

〈노래〉
풍년일쎄 풍년일쎄 / 콩농사가 풍년일쎄
심을때는 작은콩씨 / 밭에뿌려 작은콩씨
햇빛받아 줄기가 자라 / 콩깍지가 열렸다네
풍년일쎄 풍년일세 / 콩깍지가 풍년일세
얼씨구~ 얼씨구 (소리친다)

떡돌 : 할머니 ~ 콩떡주세요~
콩돌 : 저두요 ~ 양야야야 내가 먼저야
떡돌 : 아냐 내가 ~ 어? 떡 떨어졌잖아
할머니 : 에이그 이를 어쩌냐 왜그리 서둘러
아버지 : 또 이러지 이녀석들 회초리감이다. 이 녀석
할아버지 : 아서라, 그만두거라. 오늘같이
즐거운 날 애를 때려서야 쓰겠느냐?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있느니라.

(노래한다)
좋은생각 좋은생각 / 그게무엇 인고하니
너희에게 콩씨앗을 / 열개씩만 줄테니까
내년봄에 밭에뿌려 / 콩을키워 보려므나
죽이지않고 잘키우면 / 커다란상을 줄테니까

아이들 : (박수치며) 좋아요 좋아요
콩돌 : 자신있어요 할아버지
떡돌 : 저도 자신있다구요 히히
할머니 : 아이구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시구려 가만
그럼 할머니가 다른 떡 내올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이렇게 뮤지컬은 시작되고 무대는 내년 봄으로 옮겨진다. 집 앞 왼쪽에 작은 텃밭이 만들어지고 한쪽은 콩돌이 것, 한쪽은 떡돌이 것이다. 콩 줄기가 제법 자라 잎사귀가 올라왔다. 두 아이는 부지런히 물을 주어 재미있게 잘 키운다. 여름이 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콩 줄기가 자꾸 말라 시들시들 하자 콩돌이는 종이로 햇빛을 가리고, 물주고 열심이다. 떡돌이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시원치가 않다. 결국 떡돌이는 실패하고 말고 콩돌이는 매일 물을 주는데도 힘들다. 비가 오지 않는다. 더 애가 탄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느라 정신이 없다. 할아버지 콩밭도 마찬가지다. 물이 모자라 빨리 비 오기만을 바라면서 온 가족이 물동이로 물을 길어 열심히 물을 준다. 콩돌이도 물 주다가 지쳐서 툇마루에 벌렁 누워버린다. "아유, 이놈의 비 언제 오지?" 콩돌이는 그만 잠이 들었다.

KBS〈도올아인 오방간다〉

세대와 시간을 넘어 소통하다



김종석

KBS 3.1운동 100주년 방송단 책임프로듀서
〈역사저널 그날〉 팩추얼 드라마, 〈임진왜란 1592〉,
팩추얼 다큐 드라마 〈한국사기〉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2019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방송단
〈도올아인 오방간다〉 〈나의 독립 영웅〉 책임프로듀서
2010.10 / 2014.3 / 2016.11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2014 캐나다 반프상 심사위원대상
2015 광저우다큐페스티벌 – 최우수상, 촬영상
2017 한국방송대상 대상



사진 : 〈도올아인 오방간다〉 홍보 포스터, 필자 제공

과거를 오늘의 것으로 만드는 일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KBS는 작년 9월부터 '방송추진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고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관련 방송들을 기획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들을 과거가 아닌 오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였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작이요 일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0년을 통찰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 시대의 대표 석학 도올 김용옥 선생을 모시고 강연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했다.

제작진의 기획 의도에 적극 공감하신 도올 선생께서 흔쾌히 출연에 동의하셨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셨다. "영화배우 유아인 씨랑 같이 하면 어떨까?" 솔직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갑자기 웬 유아인? 과연 한다고나 할까? 그래도 섭외되면 좋겠다.'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다. 도올 선생께서는 이 기획이 자신만의 일방적인

강연이 되길 원치 않으셨다. 특히 역사에 관심이 없는 요즘의 청춘들이 흥미를 가지게 하려면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즈음 도올 선생은 영화 〈버닝〉에 대한 논평 등을 계기로 배우 유아인 씨와 막 인연을 만들어가던 차였다. 도올 선생은 자신이 직접 유아인 씨를 섭외해 보겠다고 했다. '세상에, 섭외까지 직접 해주신다고? 이런 횡재가!' 그래도 반신반의했다. '설마 그 잘나가는 배우가 교양 프로그램에, 그것도 KBS에 나온다고 할까?'

도올 선생께서 유아인 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직접 설득을 하셨고 '제작진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유아인 씨는 KBS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KBS는. 공무원 조직 같고." 대충 이런 말을 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자신 있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다. 뭔가 비장의 카드가 필요했다. 미리 만난 기획사 이사를 통해 그가 단순히 방송국에서 준 역할만 하려 하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도올 선생과 유아인 씨 정도의 출연자를 모셔 놓고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 이 프로그램은 도올 선생과 유아인 씨 그리고 KBS 제작진이 공동 기획, 공동 연출하며 함께 만들어가려고 한다." 결국 유아인 씨가 출연을 결정했다.

강연에서 토크쇼로, 다시 콘서트로

이후 유아인 씨는 기획자 겸 연출자로 제작 전반에 실제 참여했다. 평소에 미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디자이너 그룹의 멤버로 활동을 해오던 그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며 세트 디자인에 참여했고, 홍보용 포스터와 티저 영상을 기획하고 연출했으며, 프로그램의 타이틀 영상은 물론 타이틀 음악의 기획(작, 편곡과 제작은 가수 겸 작곡가 김C가 맡았다)까지 맡는 등 다재다능한 역할을 맡았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도올아인 오방간다〉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정한 것이다. 최초 제작진이 생각한 제목은 '아인아! 도올 할래?'였다. 유아인 씨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에게 장년 세대의 대표 도올 선생이 말을 거는 느낌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유아인 씨는 보다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나온 제목이 '도올아인 오방간다'였다. 제목을 제안한 유아인 씨에 따르면 '도올아인'은 도올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을 합친 말이자 흔히 말하는 '돌아이'처럼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힙스터들에게 '기분 좋다', '신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오방간다'라는 말을 더해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배우 유아인이 그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흥을 느끼는 쇼를 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여기에 동양의 전통적인 방위 체계인 오방(五方) 즉 동, 서, 남, 북과 중앙의 5가지 방향의 의미도 더해 모든 금기와 관습을 뛰어넘어 '사통팔달 한다'는 뜻도 함께 담았다.

이제 프로그램은 도올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을 투톱으로 하는 '강연 토크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과연 오방갈 수 있을까? 뭔가 파격적이면서도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낼 퍼포먼스(performance)가 가미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에도 유아인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씽씽 밴드라는 음악가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섭외해 봅시다." 유튜브로 본 씽씽 밴드의 공연은 모든 제작진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전통 음악인 경기민요를 파격적인 의상과 무대 매너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음악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세대 간 소통을 추구하는 〈도올아인 오방간다〉의 기획 의도에 완벽히 부합했다. 당장 섭외에 나섰다. 그런데 밴드의 리더 격인 이희문 씨의 반응이 싸늘했다. "더 이상 씽씽 밴드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내부 문제로 '씽씽'의 활동을 접은 것이었다. 유아인 씨와 제작진이 설득에 나섰다. "씽씽 밴드 그대로 하지 않아도 좋다. 선곡과 무대 의상 등 공연 콘셉트에 대해 이희문 당신에게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전통 음악의 대중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 이희문 씨가 의외의 질문을 했다 "전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약 1초의 정적이 흐른 후 내가 던진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통은 변하는 거죠"

이희문 씨까지 합류하면서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이제 공연까지 가미된 어엿한 콘서트가 됐다. 강연에서 토크쇼로, 다시 콘서트로 프로그램이 형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KBS 제작진이 아니라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배우 유아인 씨였다. 출연자가 기획과 연출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도올아인 오방간다〉가 다른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점이자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결정적 요인이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려 평생 혼자 해온 강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유아인 씨에게 손을 내민 도올 선생의 겸양, 수십 년 이상의 연장자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와 단둘이 무대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겠다고 결심한 유아인 씨의 용기, 그리고 도올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이라는 두 카리스마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면서도 결코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는 이희문의 포용력이 어우러져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이제껏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보기 드물었던(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울) 조합을 만들어냈다.

역사적 사명을 담은 소통

내용적으로도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관습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임에도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을 과거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오늘 이 순간의 시사 이슈들을 함께 그 의미를 재해석했다. 재혼한 어머니의 자식으로 과거시험을 볼 수 없었던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 '베틀 짜는 며느리와 어린아이가 진정한 하늘님'이라고 설파한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편에서는 성차별과 아동보호 이슈를 뜨겁게 토론했으며, 이 시대를 '헬조선'이라 말하는 청춘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100년 전 일제 식민지배하에서 세상을 바꾼 3·1 운동의 기획자, 청년 여운형과 신한청년당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지식과 배움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진정한 독립을 추구한 도산 안창호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 가장 뜨거운 감자인 교육 문제를 함께 다룬 편은 단연 화제였다. 출연자 이희문 씨가 자신의 어머니인 고주랑 명창 역할을 하고, 국악인 신승태 씨가 고주랑 명창의 스승이자 경기민요의 대모인 고 안비취 명창으로 분하여 전통 음악 분야에서 행해지는 '도제 교육'을 오늘의 교육과 비교하는 파격적 시도를 한 것이다.

무엇보다 〈도올아인 오방간다〉의 핵심적 주제는 '소통'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제기된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의 불통과 갈등의 실체를 도올 선생과 유아인 씨의 대화, 그리고 출연자와 방청객들의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냈고 동시에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다.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구축한 도올 선생과 유아인 씨, 그리고 이희문 씨가 한 공간에서 한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지난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치우치지 않게 다뤄야 한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었다. 과연 예정된 12편이 무사히 제작될 수 있을지 두려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한 그 누구도 이 프로그램의 역사적 의미와 소명을 잊지 않았고 덕택에 시리즈 전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도올아인 오방간다〉와 함께 한 2019년의 첫 세 달은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마지막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배우 유아인 씨, 음악인 이희문 씨, 박동민, 임승준, 장현경 PD, 문인희, 서새미, 강헌, 장하은 작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춤으로 통하였느냐

Mnet 〈썸 바디〉



하민숙

Mnet 〈슈퍼스타K〉 시즌1~3, 〈댄싱9〉 시즌1~2, 〈썸 바디〉
SBS 〈고쇼〉
KBS 〈더 유닛〉 〈댄싱하이〉
현재 MBC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

음악과 몸짓 속 핑크빛 기류

과거 〈댄싱9〉이라는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촬영 당시 촉이 좋은 후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언니 아무래도 하휘동 씨가(비보이) 최수진 씨(현대무용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처음엔 면박을 줬지만 얘기를 듣고 가만히 지켜보니 최수진이 춤만 췄다 하면 하휘동의 입꼬리가 씰룩거리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현재 댄서 부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치열한 서바이벌 중에도 유독 바디 컨택이 많은 커플 댄스 미션 후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참가자들 표정이 유독 밝고 더 열정적이라고 해야 하나… 이후 몇몇 커플이 탄생한 걸 보면 개인적인 느낌은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서바이벌 특성상 기량에 따른 합격과 불합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핑크빛 기류를 디테일하게 짚어주지 못한 게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과거 〈댄싱9〉이라는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힛 더 스테이지〉라는 아이돌과 전문 댄스크루의 팀 배틀 프로그램을 통해 〈썸 바디〉가 탄생했다.
사진 : Mnet 〈썸 바디〉 대표 홍보 포스터

이후 〈힛 더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서로의 춤을 '리스펙(댄서들이 즐겨 쓰는 표현)'하는 두 연예인이 커플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잘 만난다는 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아무 제약도 없이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들은 어떤 춤을 추고 어떤 사랑 이야기를 만들까? 몸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 춤을 연애와 접목한다면 가장 솔직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두 번의 춤 프로그램 경험이 만든 작은 호기심이 〈썸 바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장르도 역할도 다르게, 다르게

한 달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카카오 페이지의 순정만화 마니아이자 지금까지도 연애 고전 〈베첼러〉 시리즈를 한 번씩 챙겨 볼 정도로 평소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남성 출연자들이 여성 출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좋은 직업을 가진 데다 여자 출연자들은 상대적으로 외모적으로만 부각되는 기존 연애 프로그램들에 흔히 보이는 몇 가지 패턴은 피하고 싶었다.

먼저 〈썸 바디〉는 출연자들을 모두 댄서라는 직업군으로 통일시켰으므로 다른 조건 없이 이들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대신 춤 장르를 다양화시켜 서로 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처럼 극과 극의 장르의 댄서들이 주는 케미가 흥미로웠는데, 스트릿 댄스의 경우는 클래식 장르와 교류가 거의 없기에 춤을 출 때 여성 출연자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잡고 리프트를 하는 컨택적인 부분에서 낯설고 쑥스러워했다. 실제로 상남자 캐릭터의 아크로바티 댄서는 상대방 눈을 바라보지도 못해 한동안 애를 먹기도 했다. 물론 떨림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클래식 댄서의 경우는 일단 운동화를 신는 파트너도 처음인 데다 파워풀한 동작에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서로 간의 호감 썸이 윤활유가 되어 호흡을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역할에도 변화를 두고 싶었는데, 흔히 막내 역할은 귀여운 이미지의 여성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빠들에게 사랑받는 캔디 같은 이미지라고 할까?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연상 연하 커플이 넘쳐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썸 바디〉에서는 막내는 23세의 남성이, 가장 큰형님 역할은 30세 여성(동갑 남성도 있었음)으로 설정했다. 썸은 유기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을 조금 흥미롭게 하고 싶었다. 시청자들은 물론 출연진들도 막내의 의외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가장 인기 많았던 여성과 최종 커플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 출연자들의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사실이지만 의외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바로 '실력'이었다!

서바이벌도 아닌데 연애 프로그램에 실력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출연자들을 댄서라는 직업군으로 통일한 만큼 서로의 춤에 대한 리스펙이 필요했다! 발레, 한국무용으로 출연했던 클래식 댄서들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춤을 시작해 중·고·대학교·대학원 그리고 각자의 댄스컴퍼니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춤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춤을 잠깐 배웠거나 단순 취미로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실력은 물론 대화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방송에서 "춤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비보이의 질문에 모두 한동안 말이 없어진 건 나이와 중력을 온몸으로 이겨내는 은퇴 시기를 늘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기에 가능했던 침묵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준 높은 춤 실력에 비주얼, 매력적인 성격까지 가진 출연진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각종 댄스 크루, 스트릿 대회, 콩쿠르,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뮤지컬 앙상블, 심지어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까지 스캔하는 작가들의 노력에 리스펙!!

하지만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애인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지… 아, 이 친구 참 괜찮다… 싶으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좌절 또 좌절.

어렵게 출연자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출연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누가 밥 사준다 해도 나가지 말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말고… 썸 탈 거리는 조금도 만들지 마세요. 제발요…" 출연자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다.

춤으로 사랑을 찾다

방송이 끝나고 음원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방송에서 주로 쓰였던 노래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주로 출연자들 간의 마음을 전달하는 '썸 뮤직' 때문인데 이 방식을 두고 가장 길게 고민했었던 것 같다. 매일 편지를 쓸까? 사진을 찍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희극이든 비극이든 연애할 때는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얘기 같지 않나. 저마다 가슴속 누군가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O.S.T 같은 노래 하나쯤은 있으니 바로 음악이 메신저로 제격이었다.

여기에 에피소드가 있다. 출연자들이 썸 뮤직을 받을 때 "당신에게 온 그(그녀)의 썸 뮤직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방송 2회 차까진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녹음했는데 그대로 방송을 타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3회부터 로이킴과 정승환의 설탕 목소리가 나오면서 썸 뮤직의 몰입도를 확 올릴 수 있었다.

출연자들이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며 본인의 감정을 대비시켜 한참을 고민한 후 보내는 그 마음도! 귀 기울여 콩닥콩닥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익히 알지만 알아서 더 두근대는 설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다. 개인적으로 심규선의 '부디'를 들을 때는 한강에서 엉엉 울던 한 남자 출연자가 떠오르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흘러나오면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썸 뮤직을 보냈던 출연자의 허망한 눈이 생각나서 마음이 씁쓸해진다.

출연자 모두의 매력을 방송으로 담아내기엔 10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작가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라는 뜬금 닭살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 춤으로 사랑을 찾은 커플들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인생인 다양한 장르의 춤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썸 바디〉에 출연해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 모든 출연자들에게 고맙고, 프로그램의 높은 화제성이 출연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이들의 춤을 보러 가는 유료관객이 더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요즘 뭐봐 ?

나의 EX



박해영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KBS-TV
〈달려라 울엄마〉
〈올드미스 다이어리〉
MBC-TV
〈90일 사랑할 시간〉
JTBC
〈청담동 살아요〉
tvN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등
2019년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부문 수상

대만영화로 첫 씬은 이렇다.

허름한 아파트의 문짝을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마구 두드리고, 고등학생인 아들은 그 또래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 그런 엄마가 부끄러워 한쪽에 떨어져 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기는 했지만 관망하는 자세. 엄마는 그 아파트에 사는 젊은 남자에게 악다구니를 퍼붓는다.

내가 남편이 바람난 것도 모자라, 하물며 남자랑 바람나 기가 막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사망보험금을 네 앞으로 해놔서 내가 지금 돌아버릴 지경이다. 난 쟤를 유학 보내서 보란 듯이 키워낼 거니까 그 돈 내놔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게이라는 걸, 그리고 내 남편과 바람 핀 상간남이란 걸 세상에 다 까발려 개망신을 주겠다.

영화는 이렇게 첫 씬에 이들의 서사를 다 까고 시작한다.

이제 남은 얘기는 이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버무리는가 하는 문제.

죽은 남자를 중심으로 남겨진 세 사람. 아내, 아들, 애인의 얘기를 고등학생인 아들의 시점으로 풀어낸다.

나는 중고생들이 대화하는 자리에만 가면 조용히 귀 기울인다. 그 또래 아이들 특유의 직관이, 살아있는 말들이 좋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기 직전, 어른들 세계의 부조리함을 눈치챘는데, 아직 그 부조리함에 물들지 않아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본다. 세련된 단어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겅중겅중 넘어가는 말에도 기가 막힌 핵이 들어있고, 어쩜 저렇게 적확한 단어를 끄집어낼까 싶어 짜릿할 때가 많다.

이 영화에서도 소년의 말들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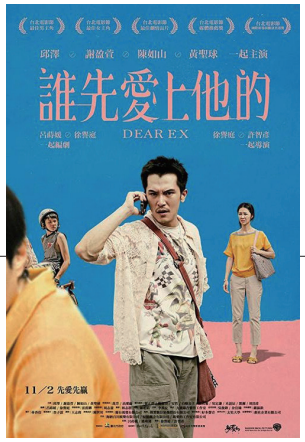


사진 : 〈나의 EX〉 홍보 포스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얘기가 소년의 시점으로 흐르니, 역동적이면서 부담이 없다. 그런데 처음엔 소년에게 마음이 가더니, 갈수록 엄마에게 마음이 간다. 세상 제일 불쌍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며 시종일관 악악대고 징징대는, 내가 아들이어도 저 엄마를 피해 하루빨리 해외로 유학 가버리고 싶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엄마도, 결국엔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게끔 만든다.

남자의 나이든 모친이 자신의 아들이 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걸 알고는, 여자는 빌미를 잡았다 싶어 다시 남자를 협박한다. 네 엄마에게 다 말하기 전에 돈을 내놔라. 그래도 돈을 내놓지 않자, 여자는 모친을 찾아간다. 찾아가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말겠다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분노. 남편과의 달달했던 연애와 결혼생활이 다 거짓이 되어버린 상황. 제대로 깽판을 쳐버린 그녀는 꺼이꺼이 울면서 남편이 떠난 후로 매일매일 궁금했던 것을 말한다. 남편은 나를 정말 조금도, 요만큼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주 조금은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주 조금은.

뻔뻔하게 돈을 내놓지 않고 버티던 남자는, 어느 날 진지한 얼굴로 소년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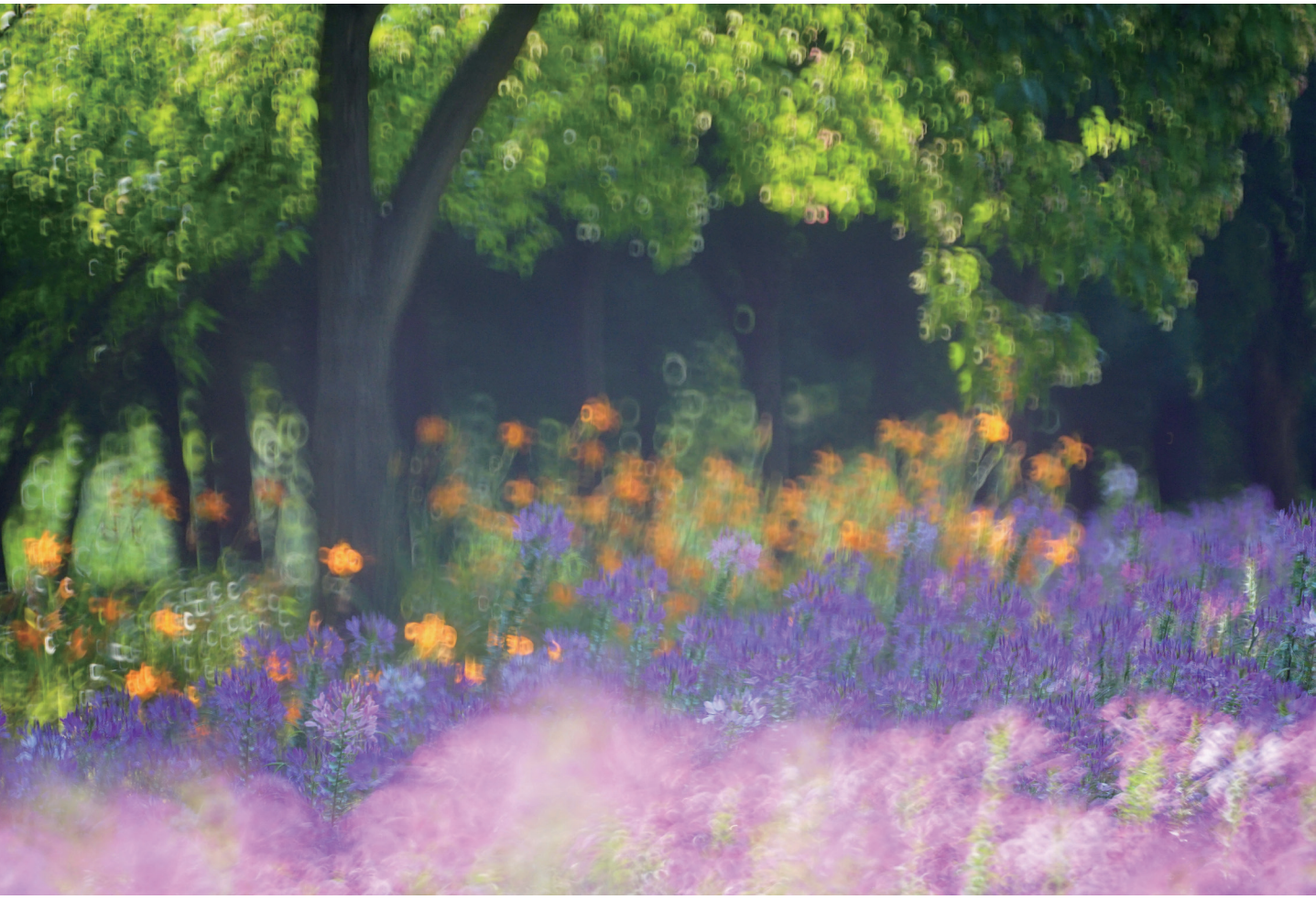
백만 년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아느냐고. 그가 떠난 후 하루하루가 백만 년이라고. 소년의 아빠는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평범하게 살겠다며 떠났단다. 그리고 결혼을 했단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걸까?

관계에서는 더 '드러운' 꼴 보지 말자 싶어 단칼에 자르고 떠나야 하는 관계도 있지만, 갈 데까지 가서 끝장을 봐야 하는 관계도 있어 보인다. 이들은 후자다.

세 사람의 응어리가 부딪히고 풀리는 과정을 보면서, '모든 관계는 치유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봄,
나의 로맨틱 시즌.



고선희[1]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2015 tvN 금토 16부작 미니시리즈 〈하트 투 하트〉
2016 tvN 월화 16부작 미니시리즈 〈치즈 인 더 트랩〉

나는 왜 로맨스를 쓰는가?
나는 왜 로맨스를 좋아하는가?

나의 모든 순간, 나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가치 있어지는 때는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신조차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이다.
풀도, 꽃도, 나무도, 동물도,
하물며 돌과 같은 무생물조차도
사랑을 받을 때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진다.
적어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존재는 살아난다.

나는 왜 로맨스를 쓰는가?
나는 왜 로맨스를 좋아하는가?

사랑을 하는 모든 순간이,
나는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설레고, 고민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악다구니를 쓰다 결국 산화되어도
사랑을 하면서 모든 존재는 살아나고, 성장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단언컨대, 사랑이 당신을, 세상을, 구원한다.
– '작의' 중 –

봄이네요. 무채색의 공간이 분홍분홍하고 노랑노랑한 꽃들과 연두연두한 여린 잎들로 가득 채워지는 봄. 빛조차도 마음 설레고 따뜻해지게 가득 차는 봄. 그래서 봄이 되면 제 마음은 한껏 기대로 부풉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수줍게 얼굴을 내민 꽃몽우리만 봐도, 손 꼭 잡고 줄을 지어 삐뚤빼뚤 재잘대며 걸어가는 4세반 5세반 아이들만 봐도, 상점 쇼윈도우에 걸린 하늘하늘한 원피스만 봐도, 살랑살랑 산을 넘고 아파트 단지 사이를 돌아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흙냄새만 맡아도, '아~! 봄이구나. 다시 봄이 왔구나.' 안심이 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 것이 나도 뭔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왠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겨서요.

계절을 사랑으로 써보라면 여름은 서로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져 무이성(無理性)과 무논리(無論理)가 지배하는 '폴 인 러브(fall in love)'의 시기겠지요? 서로만 보이고 서로가 세상의 전부이며 서로가 있어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가을은 아마도 그런 시기를 거쳐 현실을 자각하고 서로를 감싸고 있는 세상까지 보이는,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안정이 되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멜로'의 시기이고요. 겨울은… 그런 사랑도 끝난다는 걸 알게 되는 황량하고 차갑고 텅 빈 '실연과 아픔'의 시기겠네요. 처절한 아픔이 지나면 비로소 그 사람의 사랑과 아픔과 배려가 보이는, 그래서 슬프지만 또 그래서 사랑을 믿게 되는. 책장에 책이 꽂히듯 사랑도, 추억도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차곡차곡 채워져 그렇게 사랑의 계절이 완성되는. 봄은, 아~ 봄은 그래서 '로맨틱 시즌'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게 하는. 사랑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이 사랑스러워서요.

초록이 짙은 나무와 분홍과 보라의 풍접초와 주황의 참나리가 가득한 한여름의 사진이지만 저는 이 사진을 찍고 봄을 떠올렸습니다. 500미리 수동 반사렌즈를 빌려 처음으로 찍어 본 세상은 설렘처럼 몽글몽글했고 색감과 분위기와 빛은 로맨틱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게 봄은 로맨틱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의 로맨스 계절입니다.



김수민
변호사의

Q&A

원고료 미지급 사례의 대응 방법

問 **A작가는 B제작사와 1년 동안 방송용 다큐멘터리 원고를 집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B제작사는 A작가에게 매월 20일마다 A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후 체결 후 3개월 동안 A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B제작사 대표는 원고료 지급이 연체된 사실을 매번 인정하면서도 제작사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A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작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가는 현재까지도 9개월 상당의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는 협회의 일반적 문의사항을 가공 및 재구성하여 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법적 검토 결과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答 협회 저작권 관리팀은 위와 같은 상담 문의를 받고, 작가님의 집필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서의 성격상 작가님이 프리랜서로서 제작사와 방송 원고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형태로 집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동부의 임금체불진정절차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미지급 원고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작가 대다수가 그렇듯이 프리랜서로서 제작사 또는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료는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약정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결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작가가 직접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제작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엔 B제작사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작사와 연락 역시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를 인정할 경우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급을 명령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작가님은 원고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미지급 원고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달리 제작사가 원고료 미지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미지급 원고료의 액수에 이견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시는 경우, 협회는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 협회 자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필 계약서의 정확한 판단 및 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회 저작권 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내변호사 前 법무법인 신율, 現 고려대학교 법창의센터 법률사무소 푸른봄,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時代共感



이정록 시인 강 건너 물빛

나는 이 아이가 바보 같은 작가를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피 쏟을 때까지 격정적인 에너지를 바칠 그 무엇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욱 영화평론가 이렇게 읽는 영화

캐럴의 역경은 거대한 적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캐럴이라는 주체가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속박에 있다. 타노스와 같이 어떤 특정한 거대 악이 아니라 캐럴을 둘러싼 차별과 편견이 바로 물리쳐야 하는 악인 것이다.



이장주 심리학 박사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

사람들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한 곳에 배터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時代共感
시인 이정록의 강 건너 풀빛



코피는 달다

이정록 시인

現 만해문예학교장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시집 ≪동심언어사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어머니학교≫ ≪정말≫ ≪의자≫
산문집 ≪시가 안 써지면 나는 시내버스를 탄다≫ ≪시인의 서랍≫
동화책 ≪대단한 단추들≫ ≪미술왕≫ ≪십 원짜리 똥탑≫ ≪귀신골 송사리≫
동시집 ≪지구의 맛≫ ≪저 많이 컸죠≫ ≪콧구멍만 바쁘다≫ 청소년시집 ≪까짓것≫
그림책 ≪달팽이 학교≫ ≪똥방패≫
박재삼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김달진문학상, 김수영문학상 수상

바쁜 내 콧구멍 / 이정록

앞니 두 개 뽑았다.
대문니가 사라지자
말이 술술 샌다.
침이 질질 흐른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애들이 자꾸만 간지럼 태운다.

갑자기 인기 짱이다.
귀찮아서 죽겠다.
입 다물고 도망만 다닌다.
콧물 들이마시랴 숨 쉬랴
콧구멍만 바쁘다.
– ≪콧구멍만 바쁘다≫ 창비

동심을 이야기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동시를 읽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상처 많았던 어린 자신을 불러내어 위로합니다. 함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위로를 받는 일은 또한 위로하는 일이라서 서로서로 상처끼리 얼싸안는 게 보입니다. 마음은 넉넉한 보자기 같아서 서로를 잘 감싸줍니다. 마음은 팔이 길어서 여럿과 한꺼번에 어깨동무할 수 있습니다. 동심은 하늘처럼 깊고 넓고 쓸쓸해서 먹구름까지도 다 품습니다. 먹구름의 끝자리에 맑은 하늘과 별을 선물합니다.

"기발한 상상, 유쾌한 동심"이란 주제로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동화와 동시를 쓰시는 작가와 작가 지망생, 그리고 엄마 · 아빠와 함께 온 어린이들이 이원수문학관을 꽉 채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긴 전에 매점에 들렀습니다. 동시 동화 공부하는 모임 회원들과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속이 헛헛해서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은 사내아이가 코피를 쏟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휴지를 돌돌 말아서 콧구멍에 끼워주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바보 분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림책에 사인을 받으면서 자꾸 휴지를 빼내어 코피를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사인 옆에 기린 한 마리를 크게 그리고 코피가 묻은 휴지를 건네받아서 기린의 등 무늬를 찍었습니다.

"사인하면서 기린은 처음 그려본단다. 네 피를 기념하고 싶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인이야." 아이는 눈을 멀뚱거렸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곁에 있던 엄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놀아서 피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찍어내어 내 코밑에 길게 칠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자. 남들은 바보인 줄 알 거야. 우리 둘 다 에너지가 넘쳐서 코피가 난 건데. 그치?"

"아뇨. 샘은 아이스크림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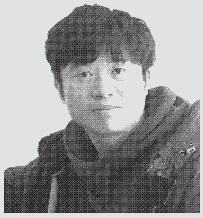
"맞아. 나도 코피 날 때까지 글을 쓸 테니까, 너도 열심히 놀아. 열심히 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나는 이 아이가 바보 같은 작가를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피 쏟을 때까지 격정적인 에너지를 바칠 그 무엇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이나 텔레비전에서 기린을 볼 때마다 자신이 흘렸던 코피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아플 때, 곁에서 아이스크림을 바르고 바보처럼 웃으며 사진을 찍어준 못난 작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이되 혼자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지만, 열정적인 친구들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만난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내 코밑에 찍힌 아이스크림이 달콤한 문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코피를 흘리는 사람과, 코피를 닦아주는 사람과, 코밑에 아이스크림을 칠한 사람이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 둘 셋, 찰칵! 달콤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기린 구름을 찾으며 놉니다. 그리고 마음의 일기장에 씁니다.

'열정적으로 코피를 쏟자.
코피 쏟는 이의 친구가 되자.
코피를 닦아주는 휴지라도 되자.
코피를 흉내 내는 아이스크림이라도 되자.
어린아이 코피로 등 무늬를 짓는 기린이 되자.
기린처럼 목을 쭉 빼고 구름을 들이마시자.
코피 묻은 딱지가 되자.
딱지 속에 동시도 한 편 써놓자.
내 첫사랑, 그 애 이름도
조그맣게 써놓자.'

時代共感
한창욱의 이렇게 읽는 영화



그는 이미 영웅이었다
〈캡틴 마블〉

한창욱 영화평론가

영화비평지 〈필로〉 기고
저서 ≪책으로 다시 살다≫(북바이북, 2015) 공저
≪당신은 가고 나는 여기≫(어른의시간, 2015) 공저
≪스탠리큐브릭≫(리디북스, 전자책 출간)
≪이젠, 함께 쓰기다≫(북바이북, 2016) 공저

많은 이의 기대와 저주(!)를 안고서 〈캡틴 마블〉이 공개됐다. 개봉 전부터 주인공 역의 브리 라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코믹스와 달리 '예쁘지' 않다는 것이다. 코미디언 이경실과 박나래를 닮았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성차별적인 비판이며,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이경실과 박나래가 히어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싱크로율'은 원작과의 비교보다 영화 내적 개연성에 의해 완성된다. 원작과 다를지라도 영화 내부에 어울린다면 그것은 적격 캐스팅이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리뷰어들은 주로 〈캡틴 마블〉이 '지루하다'고 평한다. 스펙타클한 액션보다 주인공 캐럴 댄버스이자 캡틴 마블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길며, 적과 캡틴 마블 사이의 힘 불균형으로 인해 그가 적을 쉽게 해치우는 모습이 흥미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영화의 내적 요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캡틴 마블이 적을 '어렵게' 이기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핵심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서사에 놓인다. 그러므로 과거 이야기가 길다느니 적을 너무 쉽게 이긴다느니 하는 말은 이 영화의 핵심에 가닿지 못한다. 캡틴 마블이 적을 쉽게 이기든 어렵게 이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난고를 뚫고 적을 무찌른다는 것은 영웅 캐릭터의 성장 기반이다. 〈캡틴 마블〉을 저주하는 쪽에서 주로 '적격 캐스팅', '여성 히어로'의 대표적 예로 거론하는 〈원더 우먼〉의 경우, 주인공 다이애나는 아마존 왕국의 공주로서 최강의 전사로 훈련받은 인물이다. 그는 거대한 적과 마주하고, 영화는 다이애나가 원더우먼으로 거듭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절정의 순간에 다이애나는 히어로라고 불릴 만한 성장을 이루며 관객에게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린 〈아이언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리즈를 거듭하며 토니 스타크는 성장과 그 성장에 따른 불안, 판단 오류와 함께 점차 더 어른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러한 역경과 불안, 성장 덕분에 어린 히어로 스파이더맨의 성장을 도울 만한 자격마저 획득한다. 그렇게 그는 철부지 천재에서 아버지가 된다. 하지만 캡틴 마블, 그러니까 캐럴 댄버스의 이야기는 성장보다는 회복, 혹은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다. 애초에 캐럴은 성장해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성장에 관한 기억을 상실했고, 영화는 상실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영화의 가치는 바로 그 과정에 있다.

캐럴은 성장을 통해 히어로 자격을 증명하는 인물이 아니다. 마블이나 DC의 히어로 중 불안과 성장을 발판으로 하는 인물은 대체로 '금수저'다. 브루스 웨인(배트맨), 다이애나(원더우먼), 토니 스타크(아이언맨), 티찰라(블랙 팬서), 토르 모두 막대한 부나 권력, 업적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가진 것만큼의 고민과 고난의 무게를 안고서 위태로운 처지가 된다. 이는 일반 대중의 연민과 공감을 자아내고, 그들은 영웅적 행위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명령을 암묵적으로 수행하며 영웅으로 성장한다. 만약 그들이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만으로 히어로 자격을 획득했다면, 대중에게 지지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캐럴은 금수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딸이다. 여성으로서, 여성을 향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공군 파일럿이 되었다. '파일럿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이미 그의 성장이 담긴다. 바로 이 지점이 캐럴을 매력적인 영웅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캐럴의 그러한 고난, 성장, 영웅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캡틴 마블〉은 더 없이 신나는 영화가 될 것이고, 캐럴의 무표정 또한 싹수없이 잘난 척한다기보다 강단 있고 자신만만하게 보일 것이다.

캐럴 댄버스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캡틴 마블〉의 페미니즘적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이 영화에 대단한 페미니즘적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다소 순진무구한 평가가 되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는 지금 세계적 흐름이 된 페미니즘을 회피하지 않는다. 캐럴의 회복 서사는 기본적으로 상실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다. 그의 상실은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비롯한다. 여자는 하지 못할 것이란 수많은 말, 타인(혹은 사회의 관습적 규범)이 쳐 놓은 굴레와 그루밍(어떤 특정 성향을 갖추게 하는 것), 증명해야 하는 입장으로 끊임없이 위치시키는 가스 라이팅(의심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 캐럴은 그것들로 인해 자신을 상실했고, 언제나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며 자신의 성장을 깨닫지 못한다. 〈캡틴 마블〉은 이 회복 과정을 곧 캐럴이 이겨내야 할 '적'으로 상정한다. 캐럴의 역경은 거대한 적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캐럴이라는 주체가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속박에 있다. 타노스와 같이 어떤 특정한 거대 악이 아니라 캐럴을 둘러싼 차별과 편견이 바로 물리쳐야 하는 악인 것이다. 캐럴은 증명할 필요 없이 '이미' 영웅이었고, 영웅적 행위(광자 엔진 파괴)를 통해 더 큰 힘을 얻는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망각했던 시간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선다.

時代共感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



잘하려고 할수록 실패하는 이유

이장주 심리학 박사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게임문화재단 이사
前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강의전담 교수
〈주간경향〉 〈게임톡〉 〈인벤〉 〈엔씨소프트 블로그〉 등 정기 기고
저서 ≪여자와 남자는 왜 늘 평행선인걸까?≫ ≪십대를 위한 미래과학콘서트≫ ≪사회심리학≫ 외 다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닭장 프로'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닭장을 연상케하는 골프연습장 안에서는 프로골퍼처럼 잘하는데 막상 실제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면 연습장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닭장 프로는 골프에만 국한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수험생들 가운데 모의고사 점수는 좋은데 막상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야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하릴없는 주변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하다는 의미로 '유리멘탈'의 소유자라고 위로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정신력'이라 부르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의지력(will power)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아 고갈(ego depletion)'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Baumeister)가 주장한 이론으로, 사람들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한 곳에 배터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자아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마무리가 좋게 끝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아 고갈 이론을 앞선 예에 적용해보지요. 닭장프로들의 경우, 골프 샷 하나하나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 초반에는 그럭저럭 점수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급격히 무너지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수험생의 예를 들자면, 1번 문제나 시험 초반부 문제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지요. 그 결과 나머지 문제들을 풀 시간과 집중력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시험 점수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결과는 상식과 다른 조언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계획을 너무 꼼꼼하게 세우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실행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란 말은 딱 이 경우에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꼼꼼한 계획이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한다고 해도 수많은 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소수의 변수만 고려한 꼼꼼한 계획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하는 실전에서는 매우 부서지기 쉬운 취약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탁상행정이란 말은 딱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된 심리적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들은 연습에서 42.195km를 완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전에 사용할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뛰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훈련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며 실력을 늘리는 전략적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험생의 경우, 동일한 패턴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기보다는 오답 노트를 집중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전략으로 고갈된 자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타이트하게 진행하면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보다는 후반부에 자제력이 떨어져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전 체중보다 증가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기법 중 '치팅 데이(Cheating Da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마음껏 먹는 그런 날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마음껏 먹으면 그동안 다이어트가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긴장감을 해소하여 다시 6일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자아 에너지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장기간 다이어트에 더 이로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고수는 하수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수많은 실패를 수용한 결과로 성공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고수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에 가까울 듯합니다. 잘하려는 마음과 실패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였던 겁니다.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하여

JAPAN

김수현
일본 통신원, 교토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뜨거운 감자, 콘텐츠 다운로드 규제 논란

일본에서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국회에 제출하고자 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쟁의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전체 저작물로 넓히는 것, 즉 위법화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오히려 일본의 콘텐츠 업계에서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본 자민당이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위법 콘텐츠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개의 핵심 골자가 드러나 있다. 첫 번째로는, 불법 콘텐츠가 있는 웹사이트의 URL을 모아서 해당 사이트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나 '리치 앱'에 대한 규제의 도입이다. 리치사이트란, 일본만화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저작권 침해자가 해당 파일을 해외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들을 하나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데, 그 사이트를 일컬어 리치사이트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링크를 모아놓은 링크사이트에 해당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콘텐츠의 파일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번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리치사이트 혹은 리치 앱 운영자와 제공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권리자의 민사 청구(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골자이다. 한국의 판례에서 보자면, 링크사이트에 대한 위법성을 가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2015년 '츄잉사건' 대법원 판결 무죄), 지금까지도 저작권 침해물의 온라인 유포가 만연한 상황이다. 일본 역시 이에 대한 저작권 권리자들의 피해는 상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의 법안을 개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또 다른 하나의 골자는 다운로드 위법화에 대한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다. 다운로드 위법화란, 인터넷상에 해당 콘텐츠가 위법으로 업로드된 것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하는 행위, 즉 사적인 사용 목적으로 다운로드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의 정규판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죄(친고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음악과 영상에 대해 다운로드 위법화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영화 상영 직전에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영화 도둑"이라고 칭하는 영상이 함께 나온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음악과 영상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만화, 잡지와 같은 모든 저작물 콘텐츠를 다운로드 위법화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만화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의 제출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인터넷이 정보 수집의 도구로서만 활용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콘텐츠가 위법으로 업로드/다운로드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법하게 업로드된 콘텐츠를 모르고 다운로드 했을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에 적법하게 인용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운로드 했지만 실제로는 위법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법인지 위법인지 개인이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다운로드 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다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법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반대의 주요 포인트는, 인터넷의 업로드를 규제하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만화 등의 창작이나 관련 연구를 확산시키는 데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패러디 만화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경우, 패러디 만화를 그린 작가는 본인의 '정규판'을 올린 것이지만, 원작자에게는 그 패러디 작품은 위법적인 업로드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 패러디 만화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가정된다면, 2차 창작 문화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는 2차 창작의 저작물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 책임은 남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만화나 소설 등의 일부를 이미지로 보존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지를 보존하는 행위도 역시 다운로드이므로, 트위터 등에 만화의 한 컷을 올려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도 이론상으로는 침해물의 업로드/다운로드에 해당한다. 그런 단순한 행위까지 위법 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저작물을 함부로 위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제도적 확충과 저작권 의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이번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가능한 한 줄이면서 얼마나 악질적인 해적판의 다운로드에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은 차치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다운로드 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만을 대상을 좁혀서 법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경미한 다운로드만으로 유저들을 실제로 적발하는 것 등은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음악 ·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법 개정 후에도 현실적으로 적발된 예는 없다. 즉, 실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를 위법화 함으로써 일반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적판의 피해는 심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일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저작권 침해 피해의 대책으로, 제도적 확충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 의식이 창작자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작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작품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소비된다면, 결국 그것은 창작가가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더욱 심각한 창작의 부재를 낳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이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시려구요? 보험계약 대출 활용하세요!

글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보험을 깨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큽니다. 보험 보장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동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계약 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받으면서 해지 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바로 대출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①창구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24시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②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또한 ③수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④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 필수

보험계약 대출 금리가 모든 회사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은행도 은행별로 상품별로 다른 금리를 제시하듯이, 보험 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금리도 회사별로 상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 대출부터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행 등 대출 금리와 비교

단순 숫자로 비교해보면 보험계약 대출의 금리가 은행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대출의 금리체계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이율이 7%라고 한다면 보험계약 대출의 금리는 '7%+가산금리'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미래에 돌려줄 보험 상품의 적립금을 7%의 이율로 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7%+가산금리' 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참고로 생명보험회사들의 가산금리는 1~2%대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은행 등과 금리를 비교하신 후 결정하시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 장기미납 않도록 유의

보험계약 대출은 이자를 못 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연체이자율이 아닌 정상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됩니다. 즉 이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은 장기간 미납하여 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보다 커졌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 보장 또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자 납입 전 계좌잔고를 확인하시고,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는 빨리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어라, 꽃

지난해 3월에 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1센티미터 남짓한 작은 종양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술하면서 두 군데 림프 전이가 발견되었고 병기가 늘었다. 피해갈 것이라 여겼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투병인으로 돌파하게 되었다. 서양의학의 화학치료 요법은 일종의 전쟁이다. 아는 바와 같이 암세포를 죽이려 독약을 몸에 붓는데, 정상 세포도 그 독의 공격을 받는다. A.C(에이디 마이신과 사이클로포마이드)라는 약을 투여하자 소문대로 머리카락, 속눈썹 등 온몸의 털이 싹 다 빠졌고 탁셀을 맞자 심한 전신 근육통과 손발의 감각 이상이 발생하며 손톱 발톱이 까맣게 변해갔다.

치료를 견디는 긴 과정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생활환경과 태도, 패턴을 재정립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난감하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는 제대로 살 준비와 제대로 죽을 준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무리한 구성안을 버리고, 내 분수에 맞게 견적을 다시 짜는 일이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다.

'사랑은 분리됨에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행위'라는 내용으로 20대의 내게 큰 힘을 주었던 〈아직도 가야할 길〉의 저자 M. 스캇펙 선생이 인간의 어리석음, 실책에 대해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고 탁월하게 표현했던 말도 떠올랐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마취상태로 11시간 이상 진행되는 수술을 받고 나오면서 돌아가신 엄마를 겪었다. 놀랍게도 나는 엄마처럼 양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엄마가 되어 있었다. 엄마의 눈으로 나라는 인간을 보는 경험을 한 것이다. 분리 아닌 연결. 엄마의 눈과 나의 눈 사이, 블라인드 지점에, 이를테면 살려야 할 아기가 숨어 있었다. 여성 가장으로 세상과 싸우는 미션을 수행하느라 폭력적이 되어가며 포기했던 엄마 자신의 꽃봉오리, 그런 엄마의 조수 역할을 하며 매 맞는 딸로 사느라 감춰두었던 나의 꽃봉오리가 그 캄캄 어둠 속에 버려져 있더라고 하면 맞는 표현일까?

1차 항암 주사 후 극심한 구토증으로 고통받을 때, 문득 우리 집에 많이도 있는 하얀 사기그릇들이 싫



김문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KBS-TV 〈다큐 3일〉 〈낭독의 발견〉 〈수요기획〉
〈한민족 리포트〉 〈인간극장〉 〈생방송 여성〉
MBC-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명시 기행〉 〈우리 시대의 명인〉

어졌더랬다. 딸애는 독일 유학 중이고 혼자 전투태세를 불사르며 진수성찬을 차려 먹으려 애쓰던 중이었다. 이 그릇은 아득히 오래전 나 결혼할 때, 엄마가 어디 빚 받을 곳에서 돈 대신 집어온 그릇 세트였다. 엄마는 그것을 내 혼수로 떡하니 해줬던 것인데, 나는 기능적으로 아직 멀쩡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빛깔과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그릇을 사용해오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 가변적인 취향 따위에 돈 쓰기를 꺼려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난 이제 외쳤다. '난 이 그릇을 좋아하지 않아. 내게도 취향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첫 항암의 충격으로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동네 고급 그릇 상점에 갔다. 아, 다행히 2층에 마음에 드는 접시가 있었다. 지중해 풍의 푸른빛이 도는, 균질하지 않은 질감의 접시. 판매원이 매만지는 나를 보며 "그 접시는 그 거뭇거뭇한 부분이 참 매력적이지요?" 했다. 세트를 살 엄두는 못 냈지만 단품 한 개를 장만했고, 그 푸른 접시를 볼 때마다 사소한 행복감이 올라왔다. 고기와 야채를 열심히 담아 먹었다.

내가 구상하고 걸어가는 앞으로의 길에는 취향의 발견이나 실현, 연약한 부분을 살려가겠다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 1월로 지루한 방사선 치료까지 끝내고 회복 중인데, 지난주에는 드디어 독일 체류 중인 딸아이가 다니러 왔다. 여동생과 셋이 경주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감격스러운 포옹, 뜨거운 눈물과 애정 어린 대화가 난무할 것 같지만 현실을 밝히자면 종종 참 징하게 싸운다. 파괴적인 연인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상황이 초토화된다. 달라진 점이라면 영원한 쪼다같이 굴던 내가 암 덕분에 좀 에지(edge) 있어진 정도다.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순 없어서 '나나 잘하세요' 한다. 딸아이도 자신과 타인 사이, 어둠 속에 떨고 있는 꽃봉오리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기왕이면 이 봄에 그 가려진 꽃들이 시간의 향기를 누리며 피어나기를 기원해본다.

봄날을 위한 선곡, '청성곡'

'나는 빛과 물을 바라보고 추위, 습기, 바람, 나중에는 따뜻함을 느낀 것 말고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날씨와 관련된 상황들이 너무 엄청나게 강렬해서 미처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는 그런 장소들이 있다.' 알렉산드라 헤리스의『예술가들이 사랑한 날씨』중 한 대목입니다. '오랜 세월 같은 하늘 아래 살았던 예술가들이,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작품에 담아낸 날씨'에 관해 쓴 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삶에는 '날씨와 관련된 상황들이 너무 엄청나게 강렬해서 미처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지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금, 이 때가 바로 그런 시절 중 하나입니다.

매일 일정 분량의 글을 쓰려면 몸 상태를 민감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봄은, 일교차가 커 조금만 방심해도 금세 병원 찾을 일이 생기곤 하니까요. 오늘도 알레르기인지 감기인지 모를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데,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 '할머니'와 '손주'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늦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할머니는 아름다웠고 손주는 의젓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온 손주가 대기할 때와는 달리 소란을 피우더군요. "태권도도 가야 하고, 영어학원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또 와!" 떼를 쓰듯 할머니에게 항의하자, "조용히 하고!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 할머니가 야무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아픈데 병원엘 와야지 무슨 학원이야. 의젓한 줄 알았더니, 녀석 참….' 속으로 끌끌 혀를 차며 할머니 쪽에 1승을 안겼습니다.

퇴근한 딸에게 병원에서 본 광경을 말했더니,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딸은 저와 생각이 다르더군요. 금세 아이의 입장이 되어, "요즘 초등학생들 진짜 바빠. 학원을 서너 개씩 다니는데, 중간에 빼먹지 않았는지 엄마한테 확인 전화까지 오더라고. 학교 끝나면 꼼짝없이 학원 몇 군데를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렇게 해야 퇴근하고 오는 엄마 아빠랑 시간을 맞출 수 있거든." 딸의 말은, 학원 한 번 빼먹으면 그 바쁜 와중에 언젠가 또 보충까지 해야 하니까 그 점이 싫어서 떼를 썼을 거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가정들이 겪는 육아 현실을 모르지 않건만, 그제야 병원에서 만난 아이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집 가까운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공진아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국악방송–R 〈오정해가 전하는 엄마의 국악 달강달강〉
〈유자효의 책 읽는 밤〉 外
EBS–R 〈EBS 북카페〉, EBS–TV ABU어린이드라마 〈Look at me〉 外
KBS–R 라디오극장 〈엄마를 부탁해〉 外
KBS무대 〈고속도로 로망스〉 外
SBS–R 신춘특집다큐멘터리 〈장터, 그곳에 봄이 있다〉

일하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도…,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학원 친구들과 꼬물꼬물 어울리는 안쓰러운 아이들 모습도…, 모두 안타깝기만 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고를 쓰려고 책상에 앉으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육아의 기본은 아이에게 공감하는 것이거늘, 육아 프로그램의 원고를 쓰는 나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머쓱했습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머쓱함을 끌어안고 자책하며 자료를 찾고 있는데, 불쑥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뭐라 그래? 감기를 달고 사는 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이야,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규칙적으로 먹고 자야지, 안 그러면 병나!"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니?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던? 이렇게 살아서 너에게 못 해준 게 뭐니? 나도 안 하는 꼰대 짓을 왜 네가 해!' 쏘아주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그리고 순하게 대답했지요. "알겠어. 얼른 쓰고 잘게~." 딸에게 좀 더 공감하려 합니다. 육아는 평생 하는 것이니까요. 설마 잔소리겠어요? 엄마가 나이 먹는 게 보이니 걱정되어 한 말이겠지요, 하하….

'날씨와 관련된 상황들이 너무 엄청나게 강렬해서 미처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는 그런' 시절…, 다시 말해 원고에 집중하기 힘든 눈부신 이 봄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다만, '봄'은 지나가도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함께하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이기적인가요? 그렇다면 일말의 이기심을 떨치지 못하는 영혼을 정화할 음악이 필요할 듯합니다. 라디오작가의 글은 언제나 다음에 올 음악과 연결돼 있으니 선곡 하나 해볼게요. 오늘의 선곡은 '청성곡(淸聲曲)'입니다. 눈부신 봄날에 휘둘려 몸 상태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며 균형을 잡지 못하니, 몸과 마음이 나대지 않도록 정신줄 잡아줄 깊은 대금 독주로 말입니다.

03

作家共感

당신은 부자입니까?

"엄마 우리 부자야?"

여섯 살배기 딸아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부자인가에서부터 부자의 기준이 뭐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하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질문의 답을 원하는 아이에게 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우리 부자지! 우리는 마음이 부자야~"

다행히 딸아이는 흡족한 얼굴로

"우와~ 우리도 부자다!! 마음이 부자!!" 라며 다시 장난감을 들고 동생과 인형 놀이를 시작했다.

그러고 한참 동안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부자의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평생을 살았다. 친정집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었고, 우리 삼형제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 오빠가 늦은 장가를 가고, 내가 시집을 간 후에 엄마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정든 집을 나와 이사를 갔다. 결혼한 후에도 화곡동에 신혼집을 차렸기에 나는 태어나고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

우리 식구들에게 한 가지 큰 자부심이 있다면 그 흔한 이사 한번 가지 않았다는 거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우리 형제는 어릴 적 추억이 가득 한 감나무 집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집도 세월을 비껴갈 수 없듯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낡아갔다. 예를 들면,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 샤워를 했고 웃풍이 너무 세서 방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몇 년간 고생하다 욕실에 순간온수기를 달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하게도 버티고 산 날들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는 당시 행복했다. 주말이면 엄마와 언니랑 함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 것도 좋았고, 언니와 맥주잔을 기울이던 아지트 술집도 있었다. 초겨울이 되면 엄마와 함께 감나무에 있는 감을 따고 안방 뜨거운 아랫목에 삭혀 겨우내 먹기도 했다. 반찬이 없을 땐 아빠가 끓여준 짜디짠 강된장 하나로 며칠을 먹었던 적도 있었다. 남들이 볼 땐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우리 가족은 정말 마음이 부자였다. 한 번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송지연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MBC 생방송 〈화제집중〉
MBC 〈늘푸른인생〉
SBS 〈생방송 투데이〉
KBS 〈생생정보통〉
MBN 〈여행생활자, 집시맨〉 그 외 다수

그런데,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자의 기준이 생겨버렸다.
대단지 아파트, 명품가방, 외제차 등…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부자 같았고 내심 부럽기도 했다. 가끔 내가 가진 것들이 별 볼 일 없게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의 질문에 머뭇거렸을지 모른다.

며칠 전, 나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대학 친구를 만났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옷과 신발, 가방을 메고 외제차를 끌고 나온 부잣집 친구였다. 사실 그 친구에게 그 모든 것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재벌 집 딸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친구의 겉모습이 부러웠다. 애써 모른 척하며 그 친구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그간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뜻밖에 그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항상 네가 부러워. 너는 꿈을 이루며 살고 있잖아." 그 친구는 내가 작가의 꿈을 이룬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다. 자신은 이루고 싶은 꿈이 없다면서 오히려 나를 부러워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할 것 없어 풍족해 보이는 친구의 말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부모의 재력 안에서 그녀는 남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누리고 살았을 뿐이라며 공허한 듯 말했다. 쓸쓸한 친구의 눈빛이 가슴에 남았고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참 부끄러웠다. 친구의 따뜻한 마음보다 겉모습만 봤던 것… 그리고, 예전과 달리 가난해진 내 마음이 정말로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하늘에서 응원해주는 아빠와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오빠…. 연년생 말괄량이 두 딸과 든든한 남편, 분신(分身)같은 친구들….
그리고 아직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부자였다.
만약, 앞으로 나에게 누군가 "당신은 부자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네, 저는 부자입니다."

NEWS

1 2019년도 1분기 입회심사 결과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2019년도 1분기 신입회원 80명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신입회원은 드라마 부문 9명, 구성다큐 부문 26명, 예능 부문 37명, 라디오 부문 8명이다. 입회가 확정된 신입회원은 4월 8일과 10일에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회 서류는 1년에 총 4차례(3월, 6월, 9월, 12월) 접수 받고 있다.

2 장르별 회원연구회 사업 가동

2019년도 장르별 회원연구회 사업이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협회는 지난달 각 장르별 연구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업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3월 21일)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했고, 지원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활동 중인 회원연구회는 드라마연구회, 구성다큐연구회, 예능연구회, 라디오연구회, 번역연구회, 그리고 방송문예포럼이 있다. 협회는 금년에도 회원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5 교육원 59기 교육생 모집

협회 부설 교육원이 5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기초반부터 창작반까지 전 과정을 모집하는데, 원서접수는 4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19일(금) 오후 4시까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단, 교육원 수료생이 연수반 또는 전문반에 지원할 경우는 단막극 한 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고,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드라마 기초반과 비드라마반은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야 한다. 한국방송작가교육원은 교육과정을 드라마와 비드라마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드라마 과정은 기초반과 연수반, 전문반 그리고 전원 장학금이 지원되는 창작반 등 네 개의 과정으로 나뉘고, 비드라마 과정은 드라마를 제외한 예능, 구성다큐, 라디오 전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각 과정별 교육 기간은 21주로 동일하고 매년 두 차례, 4월과 10월에 신입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trwa.or.kr)를 참고하면 되고, 전화문의(02-780-0003)도 가능하다.

6 2019 '경상북도 영상콘텐츠시나리오 공모전' 안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제17회 경상북도 영상콘텐츠시나리오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 분야는 극영화 및 드라마 시나리오, 애니메이션으로, 경북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거나 경북지역의 전설, 설화, 인물,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경관, 기타 그 외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것을 소재로 한 극영화,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의 창작 시나리오다. 실제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 시 주 촬영지를 경상북도 지역으로 하여 제작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에 대해 총 2천 7백만 원 규모의 창작금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6월 17(월)부터 7월 12(금) 오후 6시까지로 공모전 홈페이지(www.gcult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san Contents Market 2019



한국방송작가상 수상작품집 발간

3

2018년도 제 31회 한국방송작가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집이 발간됐다. 올해 한국방송작가상 수상작품집에는 〈나의 아저씨〉의 박해영 작가를 비롯해 〈TV유치원〉의 안영은 작가, 〈라디오스타〉의 곽상원 작가, 〈김현정의 뉴스쇼〉의 이선주 작가의 작품이 실렸다. 작품집은 4월 초 발간돼 전 회원에게 택배로 발송되고, 일반서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회원 건강검진 종료

7

회원 건강검진이 지난 3월 30일 종료됐다. 올해 회원 건강검진은 1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 가까이 한국의학연구소와 한국의료재단에서 이뤄졌다. 올해 검진을 받은 회원은 총 1,496명으로, 일반검진은 723명, 프리미엄급 정밀검진은 773명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도부터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급 정밀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프리미엄급 정밀검진을 받은 회원은 올해 회원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올해 프리미엄급 정밀검진을 받은 회원은 2020년에 회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

2019 부산콘텐츠마켓

4

협회, 콘텐츠 전시사로 첫 참가

2019 부산콘텐츠마켓(BCM)이 오는 5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이틀간 부산 BEXCO 제1전시홀에서 열린다. 부산콘텐츠마켓은 해외 판로 개척, 국내외 제작투자자 교류, 중소영상제작업체 참가 확대 등을 목표로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세계 50여 개국, 1,100여 개 업체, 3,100여 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우리 협회가 전시사로 참여해 투자자 및 제작사와 접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내외 바이어와 셀러가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번 참가를 통해 협회가 방송대본의 이용허락 및 권리처리의 창구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송작가와 방송사 · 제작사 등과의 비즈니스매칭, 리메이크권 판매 협의 등을 통해 회원작가의 저작물 이용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회원 동정

경사 **이강 회원** 3월 30일 결혼

편집자의
말

봄날

3월 끝자락, 한계령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전날 폭설이 내렸다는 땅은 질척질척하고, 골짜기로 불어오는 바람은 잠깐 경치 구경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과연 봄이 오긴 오는 것인가 싶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하루 뒤, 돌아오는 길의 개나리는 어느새 만개했고, 벚나무들은 바짝 물이 올라 멀리서부터 연보랏빛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벌써 봄의 한가운데에 성큼 들어와 있었지요.

계절의 변화란 의심할 수 없는 일이건만, 유독 봄에는 이제 봄인가, 아직은 아닌가, 자꾸만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도 어김이 없었던 봄이 오는 일도 이럴진대, 한 번도 못한 길을 가야하는 사회의 변화란 얼마나 더 가늠하기 어려운 일인지요. 이게 맞게 가는 것인지, 이렇게 가면 바라는 변화는 오는 것인지. 변화의 와중에 신념을 갖기란 참 힘든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봄은 찾아오듯이 제때 씨를 뿌리고 햇볕이 잘 내려쬐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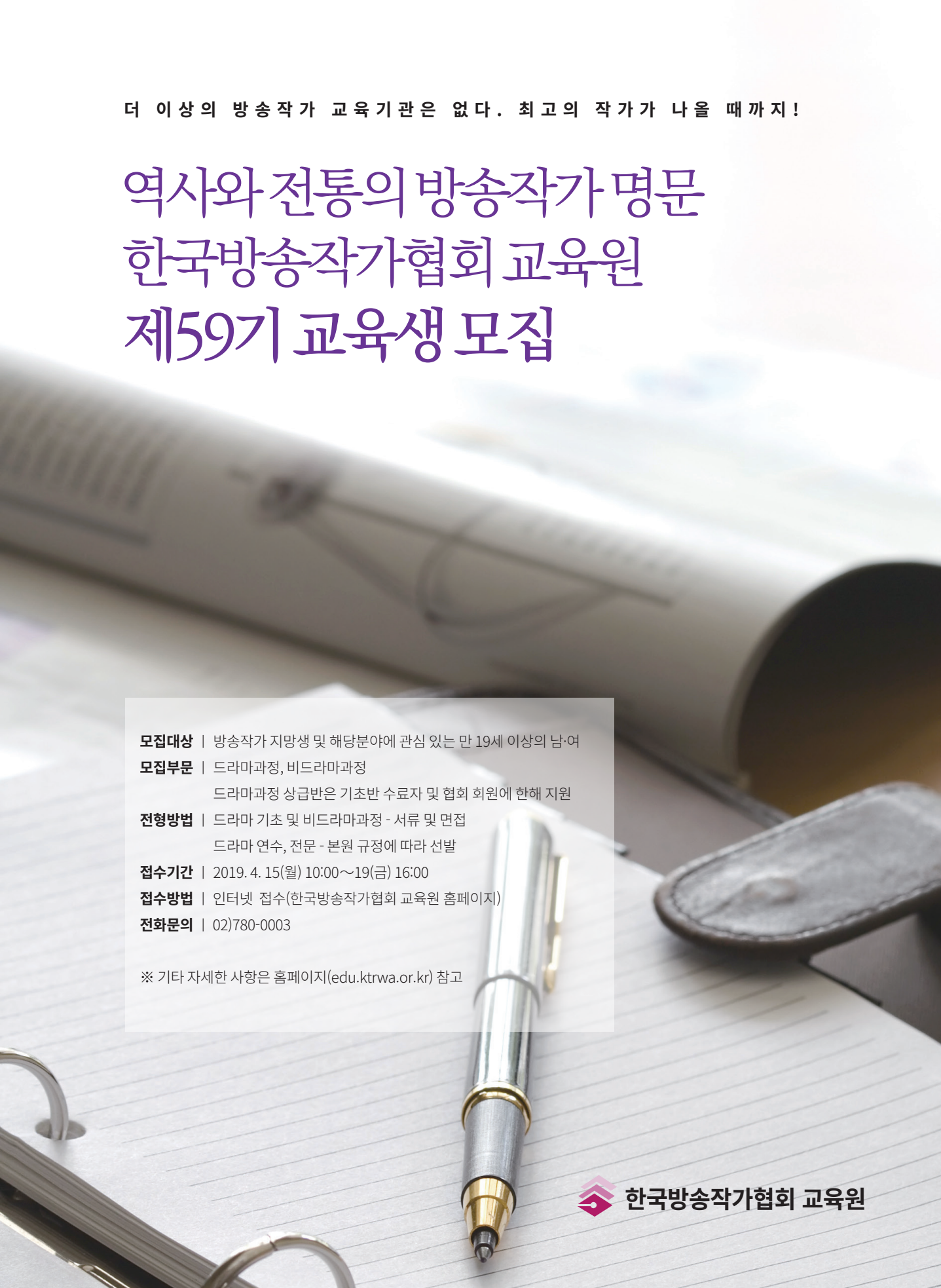
우리 〈방송작가〉도 새봄과 함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기존의 포맷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뷰와 회원 참여 꼭지를 더 늘리면서 볼거리가 늘어났다고 자평합니다. 디자인도 전면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편집팀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많은 공을 들여 생겨난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데도 힘이 적잖이 들었습니다. 이 노력이 또 작은 씨앗이 되어서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좋은 햇볕이 되겠지요. 새봄, 회원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좋은 볕과 따뜻한 바람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월간 방송작가 통권 157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운경 | **책임 편집위원** 김주영 | **편집위원** 고혜림·곽상원·김명호·김윤양·박나경 | **진행** 김선미
제작지원 홍승범 | **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 **표지 인물** 작가 김은희 | **표지 사진** 김용철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4층 403호 한국방송작가협회 | **전화** 02-782-1696, 780-5220 | **팩스** 02-783-3711
홈페이지 www.ktrwa.or.kr | **메일** journal@ktrwa.or.kr

더 이상의 방송작가 교육기관은 없다. 최고의 작가가 나올 때까지!

역사와 전통의 방송작가 명문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제59기 교육생 모집



모집대상 | 방송작가 지망생 및 해당분야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여

모집부문 | 드라마과정, 비드라마과정
드라마과정 상급반은 기초반 수료자 및 협회 회원에 한해 지원

전형방법 | 드라마 기초 및 비드라마과정 - 서류 및 면접
드라마 연수, 전문 - 본원 규정에 따라 선발

접수기간 | 2019. 4. 15(월) 10:00~19(금) 16: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홈페이지)

전화문의 | 02)780-00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edu.ktrwa.or.kr) 참고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혜택도 보장도 **길어야 안심이죠!**

내 인생, 끝까지 행복하게

100세시대 종신보장, 생명보험이 해결해 드립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